

〈한국 - 프랑스 외교사 재조명 국제포럼〉



1851 나주, 한국-프랑스 첫 만남

Corée-France 1^{ère} Rencontre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사 재조명을 위한 학술 포럼

일시 2023. 8. 21.(월) 14:00~17:00 장소 나주시청 대회의실

주최  나주시
NAJU NAJU CITY

주관 미래문화교육연구소 농촌공간연구소

후원  전라남도
JeollaNamdo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문화재재단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기박물관 소장품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사 재조명을 위한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 학술포럼

● **일시 및 장소** : 2023. 8. 21.(월) 14:00~17:00 나주시청 회의실

● **주최** : 나주시 / **주관** : 미래문화교육연구소·농촌공간연구소

● **세부계획**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 14:00~14:10 | 해금 공연 | 나주시립국악단 |
| 14:10~14:15 | 참석자 소개 | 사회 : 양수경 (미래문화교육연구소 이사) |
| 14:15~14:20 | 개회사 | 윤병태 나주시장 |
| 14:20~14:35 | 주요인사 축사 | 필립 베르투 (Philippe Bertoux) 주한프랑스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 신정훈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김정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임형택 미래문화교육연구소 이사장 |
| 14:35~15:00 | 제1부 주제 : 1851년 한·불 첫 만남의 역사적 고찰 | |
| | 발표 ① 비금도의 고래와 샴페인: 한국과 프랑스의 또 다른 첫 만남 | 피에르 엠마누엘 후 (파리 7대학 교수) (Pierre-Emmanuel ROUX) |
| | 발표 ② 19세기 고문서에 기록된 한·불 교류와 파리에서 172년 전 한·불 첫 외교행사 | 오영교(한불통신 대표) |
| 15:00~15:25 | 발표 ③ 조선후기 이양선과 나주 비금도 표류 이국인 | 김희태 (前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 |
| 15:25~15:45 | 발표 ③ | |
| 15:45~16:00 | 휴식시간 | |
| 16:00~16:40 | 제2부 주제 : 한·불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 |
| | | 좌장 : 류한호 (광주대 명예교수) 정순남 前 전라남도 부지사 김영미 동신대학교 교수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정종대 농촌공간연구소장 윤지향 나주시 학예연구사 이재근 신안군 학예연구사 |
| 16:40~17:00 | 청중 자유질의와 응답 | |

목 차

● 개회사

윤병태(나주시장) 06

● 축 사

필립 베르투(주한 프랑스대사) 08
김영록(전라남도지사) 10
김대중(전라남도교육감) 11
신정훈(국회의원) 12
박우량(신안군수) 13
이상만(나주시의회 의장) 14
김정희(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15
임형택(미래문화교육연구소 이사장) 16

제1부

1851년 한·불 첫 만남의 역사적 고찰

- 비금도의 고래와 삼페인: 한국과 프랑스의 또 다른 첫 만남 19
피에르 엠마누엘 후 (파리시테대학교: Pierre-Emmanuel ROUX)
- 19세기 고문서에 기록된 한·불 교류, 한국을 찾은 프랑스인 29
오영교 (한불통신 대표)
2023년 5월 2일 172년 동안 잊혀졌던 한·불 외교 첫 만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가 제작한 우표들과 행사 기록 47
오영교 (한불통신 대표)

- 조선후기 이양선과 나주목 비금도 표류 이국인 57
김희태 (前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제2부 한·불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 1851년 한불 외교사 재발견에 따른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75
정순남 (前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동신대학교 교수)
- 한불 관계 증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역할 (role) 77
김영미 (동신대학교 교수)
- 한국과 프랑스의 전시 교류 79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 양국 간의 시대별 사건에 따른 역사적 관점에서의 활성화 방안 89
정종대 (농촌공간연구소장)
- 1851년 나주諸島 프랑스 선원 표류의 역사와 한·불 교류 활성화 방안 91
윤지향 (나주시 학예연구사)
- 한불 학술포럼 토론문 95
이재근 (신안군 학예연구사)

172년 전 외교사를 밝히는 나주 포럼,
한국과 프랑스 우호 증진에
귀중한 초석 되기를



윤병태(나주시장)

호남의 중심 나주시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주시장 윤병태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유서 깊은 역사문화도시로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을 통해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천년 전라도의 탄생지이자 전라남도 일대를 관할했던 나주목
(羅州牧) 시기에는 서남해에 산재한 섬 지역이 나주제도(羅州諸島)에 속했습니다.

조선시대 『비변사등록』 등 많은 표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나주는 외지인을 누구든 포
용하고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국이나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
해주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에 익숙했습니다.

1851년 나주 비금도에 프랑스 선원들이 표류해 왔을 때 나주 목사는 조선의 대리자로서 韓-佛 외
교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영사를 만나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 같은 역사적 사
건이 오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고리가 되었습니다.

양국 외교사를 새롭게 바꿀 그날의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천년 전라도 중심지 나주
가 해야 할 일이라 여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을 주제로 한 ‘한-불 협력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불 외교 발전을 위해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님을 대리하여 참석해 주신 요한 르 탈렉 문정관님, 역사적인 한-불 만남을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초청에 응해주신 피에르 엠마누엘 후교수님과 한불통신 오영교 대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 큰 관심으로 후원해주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김성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님, 김정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님, 비금도 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우량 신안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포럼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韓-佛 교류가 성사되도록 애써주신 양수경 미래문화교육연구소 이사님과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12만 나주 시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과거에 묻어두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우리 나주시의 노력이 한국과 프랑스의 우호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 21세기를 함께 준비하는 귀중한 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한-불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멋진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프랑스에서 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8월 21일
나주시장 **윤병태**

Message de Félicitations de l'Ambassadeur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C'est avec un très vif plaisir que j'adresse mes vœux de plein succès aux travaux de ce Forum de Coopération diplomatique qui viennent fort opportunément souligner l'antériorité et l'intensité des relations qui unissent nos deux pays.

Un des jalons de cette histoire est constitué par l'épisode de 1851 lors du naufrage du baleinier français Narval près de l'île de Bigeum. Témoin de la solidarité des gens de mer, la vingtaine de membres d'équipage furent secourus sur ordre des autorités locales et recueillis par les habitants du lieu.

Les liens d'estime et d'amitiés forgés à cette occasion entre Charles de Montigny, le consul français à Shanghai qui avait fait le déplacement, et le représentant des autorités locales, Lee Jung-hyun, ont ouvert la voie à l'officialisation des relations entre la France et la Corée trois décennies plus tard. Exposée au Musée national de la Céramique à Paris, la gourde en terre cuite utilisée pour servir le Makgeolli est un témoin émouvant de ce moment.

Je tiens très chaleureusement à remercier la ville de Naju, celles et ceux qui ont contribué à la réalisation de ce forum ainsi que les chercheurs et historiens qui ont consacré leur temps à documenter ce chapitre important et pourtant peu connu de notre passé commun.

Je vous souhaite des discussions fructueuses et un forum enrichissant propre à inspirer nos collaborations futures.

Avec mes plus sincères félicitations,

프랑스와 한국을 잇는 역사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한-불 외교 협력 포럼이 성공적으로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 역사가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 하나로 1851년 프랑스 포경선 나발(Naval)호가 비금도 인근에서 난파한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20여 명의 선원들은 현지 당국에 의해 구조되어 주민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비금도를 방문한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 샤를르 드 몽티니와 나주목사 이정현이 맺은 존경과 우정의 관계가 30년 후에 프랑스와 한국의 관계가 공식화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파리 국립도자기박물관에 전시된 막걸리를 담은 술병은 이 순간을 감동적으로 상기시킵니다.

한-불 외교 협력 포럼을 개최한 나주시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국의 역사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순간을 기록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 연구자와 역사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양국의 미래 협력에 영감을 주는 유익한 토론과 성공적인 포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불의 첫 만남을 재조명하는
나주 포럼으로 양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길 바라며



김영록(전라남도지사)

천년 목사골 나주에서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 학술 포럼’이 열린 것을 2백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 국가의 첫 만남을 기념해 뜻깊은 자리를 정성껏 마련해주신 윤병태 나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탁월한 혜안과 고견으로 포럼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파리7대학 피에르 엠마누엘 후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석학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851년, 프랑스 포경선 나발호가 좌초돼 선원 20여 명이 당시 나주목 관할지인 신안 비금도에 표류했습니다. 이에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 몽티니가 비금도를 방문했고 나주목사 이정현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이러한 한불 외교사의 첫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가 파리국립도자기박물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역사 속 그늘에 묻혀있던 두 나라의 만남이 양국 학계의 오랜 노력으로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금도에서 시작된 프랑스와의 특별한 인연은 172년 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우호·협력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소중한 인연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우의를 다지며 미래 지향적인 한불 관계로 나아가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이 가지는 외교사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향후 한불 외교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포럼 개최를 거듭 축하드리며,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불 교류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김대중(전라남도교육감)

내일 모레가 처서, 아직 한낮 더위가 여전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어김없이 가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부는 바람도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처럼 좋은 때, 1851년 한국과 프랑스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한·불 외교협력 포럼’이 역사와 문화의 고장 나주에서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전남교육 모든 가족과 더불어 축하합니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포럼 역시 172년 전 우리 고장에서 일어난 역사를 발판 삼아 한·불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포럼은 1851년 조선시대 이정현 나주목사와 프랑스 샤를 드 몽티니 영사가 첫 만남을 가진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여 열립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가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제 한국과 프랑스는 서로의 장점과 경험을 나누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발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고민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그 가능성을 찾고 해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깊은 학술행사가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경제·교육 교류를 더욱 넓혀 나가는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전남교육청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지역과 연계한 역사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역의 역사를 담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통합적 사고력과 무한한 상상력을 길러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불 외교협력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윤병태 나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 인연이 계속되길



신정훈(국회의원)

포럼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 학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거에 묻혀있던 韓·佛의 외교사를 오늘의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72년 전, 프랑스 선원들이 비금도에 표류한 것이 운명이라면 오늘 이 자리도 운명일 것입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나주시와 미래문화교육연구소, 농촌공간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후원 기관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제발표를 위해 나주를 방문해주신 피에르 엠마누엘 후 파리7대학 교수님과 오영교 한불통신 대표님을 환영합니다.

2026년이면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 지 140년이 됩니다. 그동안 양국은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동지이자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코로나가 세계의 교류를 가로 막았을 때에도 양국은 인적교류, 문화교류를 하며 돈독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제 양국의 관계는 지난 140년의 성과 위에서 미래 140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시점에서, 나주와 프랑스가 첫 만남의 인연을 이어갑니다. 장구한 역사와 공통된 문화를 바탕으로 양국이 서로의 발전을 견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나주가 국제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럼 참가자 여러분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탁월한 대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나주시는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나주시민이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172년 전, 한국과 프랑스의 첫 외교행사가 나주였다는 사실이 대단히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 학술포럼’을 축하드리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 학술 포럼을 축하하며



박우량(신안군수)

조선과 프랑스의 외교적인 첫 만남은 지금부터 172년 전인 1851년 포경선 ‘나르발 호’의 난파와 조난된 선원들의 비금도 상륙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선과 프랑스의 1866년 병인 양요의 무력충돌 보다 15년 앞섰고, 양국 간의 평화적인 외교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세동점(西勢東漸)이 극심하던 19세기 중반 조선의 바다는 문호개방과 선교, 포경 등의 이유로 이양선들과 서양의 군함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라도 무력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스런 조선의 바다에서 ‘나르발 호’는 신안 비금도에서 난파됐고, 표류민이 된 선원들은 낯선 섬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때마침 중국 상해의 프랑스 영사로 있던 몽티니 영사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고 그는 즉각 원정대를 이끌어 제주도를 거쳐 비금도에 어렵게 도착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폐쇄성과 천주교 탄압으로 인해 선원들의 안전을 몹시 걱정했던 몽티니 영사의 생각과 달리 비금도에서 만난 선원들은 섬사람들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비금도를 비롯한 섬사람들에게 큰 사건이 된 포경선 선원들의 처리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한 나주목사 이정현을 만나 송환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신안군은 『비변사등록』에 신안 섬지역에 표착한 선박들과 표류민들에 대한 140여건의 기록을 엮은 국역 자료집을 오래전에 발간했지만, 프랑스 포경선이 비금도에 난파된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머나먼 곳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사를 연구하는 에마누엘 교수의 연구를 통해 신안 비금도와 나주가 양국의 외교적 첫 만남이 성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임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귀한 연구를 해 오신 에마누엘 교수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안군은 역사의 현장인 비금도에 나르발호 난파 기념공원과 샴페인 박물관, 몽티니 영사 또는 선원들의 출신지역과 교류를 통해 프랑스 마을을 조성해 프랑스와 한국의 우의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와 프랑스의 아름다운 인연이 지속되길 바라며



이상만(나주시의회 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시의회 의장 이상만입니다.

1851년 5월 2일.

달콤한 바람이 불어오는 햇살 좋은 날,

조선과 프랑스의 첫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무거운 분위기가 짙은 저녁, 서로를 알아가는 첫 만남에

달콤한 막걸리 한 모금과 새콤한 샴페인 거품으로

무거움은 사라지고, 서로를 감싸는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부드럽게 전환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향과 맛, 그리고 곁을 간직한

막걸리와 샴페인의 조합에

각기 고향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은 두 가지의 술은

하나의 이야기로 어우러졌습니다.

술잔 안의 세상이 따로 없고,

술잔 밖의 세상 역시 따로 없는 듯

새로운 인연들, 공감 깊어진 순간들이 비로소 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설렘 첫 만남이 가져온, 그 기적 같은 시간은

이제 2023년 8월 21일, 새롭게 이어져 나갑니다.

백칠십년 전의 첫 만남, 술잔에 흘날린 감동과 설렘에서

서로를 깊이 존중하며 새로움의 진한 정취를 감싸안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더듬어 올려다보며 만들어준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드러운 분위기 안에서 피어났던 조선과 프랑스의 우정이

만개하는 꽃잎처럼 가벼워진 마음들과 함께

여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더욱 그 우정을 돈독히 맺었으면 합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안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첫 만남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활발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원하며



김정희(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지금으로부터 백칠십 여년 전인 1851년 비금도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처음으로 조우한 역사적인 순간을 2023년 오늘 나주에서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어 기쁩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설립 이래 해외 곳곳으로 나간 우리 문화재의 조사, 연구,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발표한 국외문화재 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프랑스로 건너 간 우리 문화재는 6,502점입니다. 재단은 2018년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문화재를 통한 교류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파악함과 더불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 소장 한국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보다 한참 앞서, 샤를르 드 몽티니 영사와 이정현 나주목사는 비금도에서 만났습니다. 두 분이 함께 마시며 ‘만남의 기쁨’을 나누는 전통술이 담겼을지 모를 갈색 옹기를 비롯하여, 몽티니 영사는 당시 조선에서 수집한 일부 물품을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 물품들은 프랑스의 국가 소장품으로 세브르박물관 및 해양박물관에 귀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나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한불 외교 협력 포럼이 한국과 프랑스의 첫 만남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활발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국내외 연구자분들, 운병태 나주시장님을 비롯하여 포럼 진행을 위하여 애써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인류애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우호적 학술포럼 축하와 감사



임형택(미래문화교육연구소 이사장)

오늘 이 의미있는 나주와 프랑스 만남 학술포럼 자리, 먼저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172년 전 비금도에서 좌초된 고래잡이 배 ‘나발호’ 20명의 프랑스 선원들의 두려움과 막막한 눈빛을 보고, 그들을 우정의 손길로 보호해 주고 2척의 배까지 내어 준 그 선한 환대 마음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1851년 전라도의 작은 섬 비금도에서 나주 목사와 프랑스 영사가 첫 만남을 갖고 프랑스 선원들과 조선인들이 어울려 저녁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이야기는 동화 이상으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막걸리와 샴페인에 담겨진 양 국민의 삶과 혼을 새기게 됩니다. 홍익인간 정신 구현이며,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증표입니다.

이날 마신 막걸리 병은 현재 프랑스 국립 세브르 도자기 박물관(Musée national de céramique de Sévres)에 한국 도자기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한국학을 연구하고 있는 파리 7대학의 엠마누엘 후(Pierre-Emmanuel ROUX) 교수 중심으로 프랑스의 외교 사료와 과거 영국의 신문, 한국의 비변사 기록을 추적해서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혁명 정신의 실질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상징적인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사 재조명을 시작으로, 미증유의 사회 대전환의 시기에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면서, ‘우정과 환대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류 평화의 마음이 확산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오늘 포럼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양국 교류와 융합적 행사 등이 확대되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멋진 우호적 학술 포럼을 기획, 진행,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 프랑스 외교사 재조명 국제포럼〉

1851 나주, 한국-프랑스 첫 만남
Corée-France 1^{ère} Rencontre



제 1 부

1851년 한·불 첫 만남의 역사적 고찰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사 재조명을 위한 학술 포럼



비금도의 고래와 삼페인 : 한국과 프랑스의 또 다른 첫 만남

피에르 엠마누엘 후 (Pierre-Emmanuel Roux)

파리시테대학교(Université Paris Cité)

들어가는 말

1851년 (철종 2년) 4월 2일 전라도 연안의 비금도에 서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Narval)가 좌초되었다. 주(駐)상하이 프랑스 영사 몽티니(Charles de Montigny)는 동포를 구하려고 조선으로 건너갔고 마침내 5월1일 비금도에 도착했다. 그 다음 날, 몽티니가 나주 겸임 남평 현감 이정현(李正鉉)과 함께 프랑스 삼페인과 여러 종류의 술을 즐겁게 마셨다. 그리고 5월 4일 몽티니 영사는 조난한 포경선원들과 함께 상하이로 돌아왔다.

본인은 한국과 프랑스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17년 전 발견하여 한불 초기 관계를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그 뒤로도 프랑스어 저서¹⁾와 학술논문, 대중잡지에 나르발호 사건을 소개했다. 한국에서도 수차례 초기 한불 관계에 대해 강연을 한 적이 있지만 나르발호를 중심으로 한 강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인은 프랑스 외무부 고문서관에 소장된 몽티니 영사의 포경선 구조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나르발호 사



사진 1. 프랑스 영사 몽티니

1) La Croix, la baleine et le canon : La France face à la Corée au milieu du XIXe siècle (십자가, 고래, 그리고 대포 : 19세기 중엽 프랑스의 대조선 정책) (Paris : Cerf, 2012).

건을 알게 되었다. 몽티니 영사가 당시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이 보고서에는 나르발호 사건이 상세히 담겨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나르발호에 대한 유일한 자료는 아니다. 흥미롭게도 1851년 영국신문에 나르발호 사건 관련 기사가 실려 있다. 당시 상하이에서 발행된 ‘더 노스 차이나 헤럴드(The North-China Herald)’라는 영문 주간 신문이었다. 몽티니 영사와 함께 배를 타고 비금도에 간 영국 상인 맥도날드(James Mac Donald)가 당시 상황을 상세히 연재했다. 그리고 조선측의 『일성록(日省錄)』과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등 관찬(官纂) 자료, 즉 공식문서에서도 나르발호에 관한 여러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나르발호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프랑스 외교문서, 영국 신문기사, 조선의 공식문서에 다양하게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자료 말고도 파리 교외에 위치한 세브르 국립 도자기 박물관(Musée national de la Céramique de Sèvres)에 비금도 사건의 유물인 옹기병 3개가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상기 자료를 종합 분석해 나르발호의 비금도 사건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한불 초기 관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사진 2. 프랑스 국립 세브르 도자기 박물관 소장 옹기병

‘첫 만남’이란?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천주교의 전파와 탄압으로 시작된 병인양요를 한국과 프랑스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그 전에도 여러 번의 첫 만남이 있었다. 대표적

인 첫 만남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는 13~14세기 고려왕국에 대한 프랑스인의 기록을 통해 처음으로 한반도와 만났다.
- 18세기 조선 연행사(燕行使), 즉 조선시대 청나라에 파견된 사신과 프랑스 가톨릭 선교사의 교류를 통해 조선사람과 프랑스사람은 중국 북경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 1787년 라페루즈(La Pérouse)해군 장교가 처음으로 조선 앞바다를 탐사했다.
- 1836년 최초의 프랑스 선교사 모방(Maubant)이 조선에 밀입국했다.
- 186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는 한불 양국의 첫 무장 충돌이었다.
- 1886년 한불 양국이 처음으로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위에 언급된 사건들은 프랑스와 한국의 첫 만남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만남 이전에도 프랑스와 한국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첫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851년 비금도에서 발생한 나르발호 사건 역시 한불 양국의 다양한 첫 만남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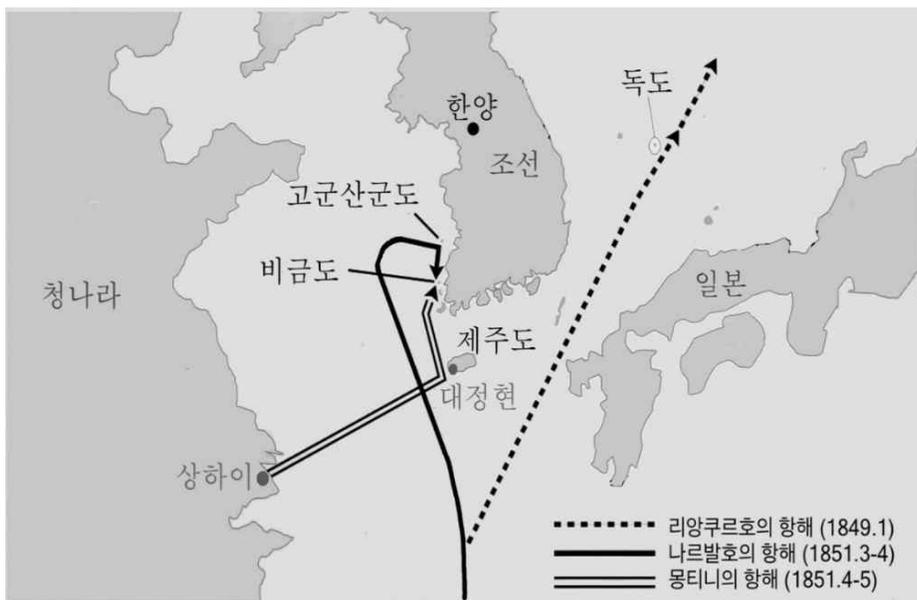


사진 3. 나르발호와 몽티니의 항해

19세기의 서양 포경 산업

나르발호 사건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서양 포경 산업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19세기 포경 산업은 미국인이 주도했다. 미국 다음으로 프랑스, 러시아, 프리시아, 영국이 뒤를 따랐다. 당시 고래는 조명 연료, 화장품, 우산 재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18세기 대서양에서 포경활동이 대폭 확장되었고, 지속적인 남획으로 고래 개체수가 감소했다. 그래서 19세기 초부터 남반구로 포경산업 어장을 확대해갔으며 인도양과 남태평양 연안 등이 새로운 어장이 되었다. 19세기 중엽, 마침내 한국 동해를 포함한 북태평양 지역까지 포경산업 어장을 확대하게 된다.

이 시기가 서양 포경산업의 전성기였다. 당시 약 300척의 포경선이 조선과 일본, 그리고 류큐 앞바다에서 활동하였다. 다수 포경선은 조류, 태풍, 지역의 몰이해, 그리고 물자 부족 등으로 각국의 연안에 출몰하고 마침내 표류하거나 좌초하기도 했다. 당연히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프랑스 포경산업의 황금기는 1830~1844년 사이였다. 이 기간에는 뉴질랜드 근처의 남태평양이 주된 어장이었으며 북태평양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1845년부터 프랑스의 포경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860년대 초반, 프랑스 포경선이 북태평양과 조선 연안을 떠난 이후 1868년에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

19세기 중엽의 프랑스 포경선들은 전부 프랑스 서북부 항구인 르아브르(Le Havre)에서 출항했다. 당시 한번 고래잡이 출항을 하면 3년 간 전세계를 돌고 귀향하곤 했다. 대서양을 지나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인도양에서 중국, 한반도, 일본, 오오츠크해를 지나 태평양 건너 하와이, 남미 칠레를 지난 뒤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르아브르로 돌아왔다. 1849년에 독도를 발견하고 ‘리앙쿠르 섬(Îlots Liancourt)’이라고 이름을 붙인 리앙쿠르호도 프랑스 포경선이었다. 리앙쿠르호는 1847년에 르아브르에서 출항해 3년 동안 세계를 돈 뒤 1850년에 다시 르아브르로 돌아왔다.

나르발호가 왜 비금도에 좌초했을까

나르발호는 1833년 프랑스 서남쪽의 바욘(Bayonne)에서 건조된 495톤수의 포경선이었으며 선주는 르아브르 항구의 기요형제(Guillot frères)였다. 1840년대 말의 선장은 리바랑(Rivalan)이라는 프랑스인이었으며 선원은 29명이었다²⁾. 위험한 고래잡이와 장기간의 항해 때문에 나르발호도 다른 포경선과 마찬가지로 ‘떠다니는 지옥’과 같은 형편이었다.

나르발호는 1850년 3월 20일 르아브르에서 출항했다. 일년 동안 대서양, 인도양과 남태평양에서 포경 활동을 하다가 1851년 2월 24일, 마리아나 제도(Mariana)를 출발해 한반도의 동해를 목적지로 정했다. 그런데 그해 3월말, 나르발호는 조선 서해 고군산군도 연안에 갑자기 출몰하게 된다. 영광 군수 김덕근(金德根)과 현지 첨사(僉使) 이명서(李命瑞)가 두 차례 그 이양선³⁾을 문정⁴⁾하려다가 실패로 끝났다. 프랑스 선장은 조선 관료에게 필답하였는데 군수의 말로는 이국 글자가 ‘범어와 전자⁵⁾ 같다(如梵書如篆字)’라는 이유로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후로 나르발호가 다시 출

2) 선원은 원래 30명이었으며 프랑스 사람 23명, 포르투갈 사람 5명, 칠레 사람 1명, 태평양 사람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금도에서 좌초하기 전에 한 명이 죽었다.

3) 異樣船, ‘모양이 다른 배’라는 뜻으로 당시 서양의 배를 가리킴.

4) 고려와 조선 시대 때 외국의 배가 처음으로 항구에 들어왔을 때나 외국인이 표류하여 왔을 때 관리를 보내 그 사정을 알아보는 것.

발하여 4월 2~3일 밤에 전라도 비금도에 좌초하게 된다.



사진 4. 1836년 프레데릭 후(Frédéric Roux)의 나르발호 그림⁶⁾

『일성록』에 따르면 나르발호의 표착지는 비금도 서쪽의 예미포(曳尾浦, 오늘날 이미해변)였다. 선원들은 종선 세 척을 타고 멀지 않은 세항포(細項浦, 오늘날의 월포마을)에 상륙했다. 비금도 서면(西面)의 풍헌⁷⁾ 양선규(梁善圭)가 표착지에 즉시 나와 선원들을 문정하였다. 양측은 상대방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모래에 그림을 그리거나 손짓, 몸짓으로 이야기했다. 양선규는 포경선원들의 신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을 옆마을인 울내촌(栗內村, 오늘날 내촌마을로 추정됨)으로 데려가 그 곳에 머물게 하였다⁸⁾.

또한 양선규는 바로 나주 겸임 남평 현감 이정현에게 문장(文狀)을 보내고 이국인의 표착 소식을 알렸다. 이정현은 그 소식을 전라 감사 이유원(李裕元)에게 전달했고 이유원은 조정에 장계를 보냈다. 이국인을 보호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정현과 전라도의 수군우후⁹⁾ 최홍현(崔洪賢)은 즉각 비금도로 달려갔다¹⁰⁾.

5) 篆字, 한자 글씨체의 하나.

6) 프랑스 옛 그랑빌 박물관((Musée du Vieux Granville) 소장.

7) 風憲, 면(面)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8) 예미포, 세항포와 울내촌의 오늘날 이름은 신안군청 세계유산과의 이재근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셨다.

9) 水軍虞候, 조선 시대 각 도의 수영(水營)에 두었던 정4품 무관 벼슬

10) 2023년 5월 이후 여러 신문 기사에서 ‘나주 목사 김재경(金在敬)과 몽티니 영사의 만남’을 언급한다. 비금도는 그때 당시 나주목에 속하였으며 당연히 나주목사가 나서야 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프랑스, 영국의 1차 자료에 따르면 김재경은 비금도에 간 적이 없으며 몽티니 영사를 만난 적이 없다. 비금도에 간 현지 관료는 바로 남평 현감 이정현이었다. 오해의 원인은 1851년의 조선 공식문서에서 이정

한편 나르발호의 선원들은 탈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선원들이 한번에 종선을 타고 도망갈 수 없으니 먼저 섬의 이름을 알아야 했다. 현지인들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비금도 사람들이 ‘티오상(Tio-sang)’이라고 대답했다. ‘Tio-sang’은 ‘조선’(19세기 한국어 발음은 ‘도선’)이라는 뜻이었다¹¹⁾. 4월 9일, 나르발호 선원들 중 9명이 선장도 모르게 종선을 타고 도망갔다. 그들은 황해를 건너 열흘 후 4월 19일에 청나라 상하이의 항구 오송(吳淞)에 도착했다. 그들은 오송에서 접촉하게 된 영국인을 덕분에 상하이 프랑스 영사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다.

몽티니 영사는 주저하지 않고 나머지 20명의 선원을 구조하려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바로 다음 날 배를 구하여 영사관 통역관 1명, 중국어에 능통한 영국 상인 1명, 상하이에 거주하던 포경 선원의 친척 1명, 나르발호 선원 5명, 중국인 20여 명 등 총 30명 정도를 태우고 선원들이 알려준 ‘Tio-sang’으로 향하였다. 그들이 이용한 배는 ‘로차(lorcha)’라고 불리던, 중국 스타일과 서양 스타일이 혼합된 배였다. 그때 당시 상하이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 전선도 상선도 없었기에 상하이 포도관(捕盜官, 일종의 경찰관) 리우치엔진(劉乾進)의 관용(官用) 로차를 빌리게 되었다.

몽티니의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나침반 1개, 육분의(六分儀) 1개, 조선지도 1장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¹²⁾. 그렇지만 영국신문 기사를 보면 사실 여러 지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몽티니 영사가 장관에게 자신의 용감함과 임시변통의 상황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썼을 것이다.

몽티니 영사의 포경선원 구조

몽티니 영사를 비롯한 프랑스 사람들은 비금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 난파된 배에서 돌아온 9명의 선원들이 비금도를 ‘Tio-sang’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하이에서 출발한 몽티니 영사는 4월 25일 제주도 서남쪽 대정현 해안에 도착했다. 이 곳은 200년 전에 『하멜 표류기』를 쓴 네덜란드 상인 하멜이 표류했던 지점과 거의 비슷하다. 이는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근대에서는 중국의 강남이나 남쪽 지역에서 배를 타고 조선이나 일본에 가면 해류와 바람 때문에 제주도에 표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몽티니 영사는 제주도에서 대정현 목사 이현공(李玄功)을 만나 필담을 통해 ‘티오상이 어딘 줄 아나? 난파한 프랑스 배를 보았는가?’라고 물었다. 이현공은 모른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몽티니 영

현은 ‘나주 겸임 남평 현감(羅州兼任南平縣監)’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1851년 5월 10일 (음력 4월 10일) 암행어사 조운경(趙雲卿)이 김재경에게 죄를 줄 것을 요청했다. 즉 김재경은 몽티니가 비금도에 도착하고 9일 만에 탄핵당했다. 이 탄핵의 원인은 나르발호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정현이 왜 ‘나주 겸임 남평 현감’이었는지, 그리고 왜 김재경 대신 비금도에 갔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11) 조선시대 때는 외국선박이 조선 연안에 좌초했을 경우 현지 관료나 현지인들은 평상시 외국인들에게 ‘여기가 조선땅이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서양인들은 ‘코리아’를 알고 있었는데 ‘조선’이란 명칭을 모르고 있었다. 그로 인해 많은 오해가 생겼다. 한 예로 19세기 중엽까지의 서양 기록과 지도에서는 부산은 ‘Chosan harbour’(즉 조선 항구)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 12) 지도는 1845년 김대건 신부가 그린 「조선전도(朝鮮全圖)」일 가능성이 크다. 몽티니 영사가 1854~1856년 프랑스에 임시로 돌아가 김대건 신부의 「조선전도(朝鮮全圖)」 두 장을 가지고 하나를 황실 도서관(오늘날의 국립도서관)에, 또 하나는 해무부에 기증하였다.

사가 이현공에게 알게 된 정보는 자기가 도착한 섬이 제주도라는 것 뿐이었다. 한편 이현공은 이국인을 문정하면서 몽티니 영사와 배에 타고온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다. 흥미롭게도 자랑과 거만이 가득한 몽티니 영사가 자기 나라를 ‘대법란서국(大法蘭西國)’으로 소개하였는데 이현공은 서양 지리도 서양 각국의 국명도 몰라 계속해서 ‘란서국(蘭西國)’으로 이해하였다.

이현공이 문정을 마치고 몽티니에게 많은 물자를 기증하고 로차에 신계 하였다. 이현공 덕분에 몽티니 영사는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향하고 며칠 있다가 전라도 신안의 다도해에 도착했다. 몽티니 영사는 섬 하나하나를 뒤지면서 난파된 선원들을 보았느냐고 수소문하고, 마침내 비금도에서 선원들을 발견했다. 상하이에서 출발한 지 12일 만이었다. 비금도가 큰 섬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현지 주민들과 관료들이 찾아와 구경했다. 몽티니 영사는 5월 1일에 비금도에 도착하고, 5월 4일에 상하이로 돌아갔다. 사흘도 안되는 짧은 방문이었다.”

몽티니의 구조인가? 조선 정부의 구조인가?

몽티니 영사는 비금도에 도착한 뒤 나르발호의 나머지 선원 20명을 만났다. 몽티니는 조선에 대한 지식이 빈약했으며 조선 정부의 천주교의 탄압 정책과 17세기의 널리 알려진 『하멜 표류기』에 반영된 조선의 부정적이고 왜곡된 이미지만 알고 있었다. 즉 서양인이 불운하게도 한반도에 난파하게 된다면 영원히 그 나라에 갇히거나 처형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몽티니 영사는 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 자기가 아주 용감하게 조선땅에 가서 ‘감금되고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는 선원’을 구조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것은 몽티니 영사의 일방적인 구조로 볼 수 있는가? 조선 뿐만 아니라 전근대 동아시아 각국에서 ‘표류민 송환 제도’가 있었다. 외국 표류민이 발견되면 잘 대접해서 보호한 뒤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제도였다. 조선에서는 이것을 ‘유원(柔遠)’, 즉 ‘멀리서 온 사람을 화목하게 하여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불렀다. 조선 후기에도 해마다 한반도 앞바다에는 중국이나 일본, 서양에서 온 배가 난파하거나 표류하는 사람이 많았고, 전라도 연안의 다도해에서 표류하는 외국 배가 상당수였다. 조선 정부는 대부분 표류민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내도록 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서양 배의 표류 빈도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서양인이 통상이나 선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조선 공식문서에서 그때 당시 서양인들은 두가지로 불렸다. 먼저 통상이나 선교를 하러 온 서양인을 ‘양적(洋賊) 또는 양추(洋醜)’, 즉 서양 오랑캐라고 불렀다. 양적이거나 양추는 무조건 입항을 거절했다. 그러나 포경선원을 비롯해 표류하는 서양인들은 그냥 ‘이양선(異樣船)을 타고 온 이국인(異國人)’이라고 불렀다. 이국인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고 중성적인 표현이었다. 환연한다면 잘 대접해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조선정부는 1851년 비금도에서 난파한 20명의 이국인을 구조하려고 했다. 전라감사 이유원은 나르발호의 선원들이 중국에 가고 싶어 한다고 비변사에 알려주었다. 5월 1일(음력 4월 1일) 비변사에서는 ‘이국인들에게 배를 마련해서 돌려보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비변사에서 이런 결

정을 내린 날에 몽티니 영사가 비금도에 도착한 것이다. 그래서 조선에서 배를 마련하기 전에 몽티니 영사가 타고 온 배에 20명의 선원들을 태우고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몽티니 영사가 비금도에 오지 않았어도 나르발호의 선원들은 조선 정부의 도움으로 청나라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드디어 샴페인과 조선의 술

몽티니 영사가 비금도에 도착한 5월 1일에 현감 이정현과 수군우후 최홍현, 그리고 하급관료 여러 명을 만났다. 후자들은 이국인 앞에서 스스로를 ‘상관(上官)’이라고 지칭하였다.

맥도날드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이정현은 그날 몽티니 영사 일행에게 만찬을 마련해 주었다 :

초가집 앞 열린 마당에서 우리를 위해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제주 장군[즉 목사 이현공]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요리 중의 하나는 품질이 좋은 송아지 고기를 잘게 썰어 맛있는 식초에 찍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하인들이 우리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외부인들의 출입을 단속했고, 마을의 여자들은 낮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 옆 제방 뒤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국인 중 한 명이 쳐다보면 여자들은 오리처럼 제방 아래로 머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결코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¹³⁾

그러나 몽티니 영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5월 1일에 ‘선원의 구조’와 이정현의 문정만 있었을 뿐이다. 몽티니가 이정현에게 그 다음날 점심에 나르발호의 표착지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다시 말해 육지가 아니라 몽티니가 타고 온 로차에서 재회하였다. 몽티니는 다음과 같이 그 만남과 점심 만찬을 묘사한다 :

섬의 우두머리[즉 이정현]와 네 명의 다른 고관들[즉 최홍현과 만호(萬戶) 두세 명], 그리고 많은 비서[즉 녹사(錄事)나 향리]들과 하인들이 세 발의 대포로 경례를 받은 후 승선했습니다. 제가 로차 뒤쪽에 설치된 텐트에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저는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여러 종류의 와인, 샴페인 그리고 독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조선 사람처럼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들은 와인, 특히 증류주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상관(上官)들은 스스로 취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하인들에게도 술을 주었습니다.¹⁴⁾

13) “An entertainment was soon spread out for us in the open yard in front of the cottage, and was served up in a much more inviting way than that of our poor Quelpart General. One favourite dish was veal of excellent quality, cut into small slices and eaten with vinegar, which was also good.

Numerous servants kept the crowd back, so as not to inconvenience us, and the women of the village took up positions behind the neighbouring dykes, so as to command a view of the strangers, but did any one of the latter look round, then down went their heads out of sight like ducks. Their personal appearance however as far as we could perceive seemed by no means dangerous.”

만찬을 마친 후, 몽티니가 이정현, 최홍현, 그리고 만호들을 선실(船室)로 데려가 포경선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만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 동안 승선한 나머지 조선 사람들은 로차에 있던 50여명의 선원을 대접하였다. 즉 각자 음식이 차려진 작은 테이블(소반) 앞에 앉았고, 그 사이로 조선 사람들이 ‘항아리’(cruche, 즉 옹기병)에 든 술을 잔에 따라주었다. 몽티니 영사가 그 몇시간 동안을 ‘그림 같은 만찬’(repas pittoresque)으로 기록하고 조선 사람들의 정(情)을 마침내 인정하였다.

상기의 기록을 보면 몽티니 영사가 상하이를 떠났을 때 로차에 수십 병의 고급술이 실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머물 때도 이현공 목사에게 ‘유리병 16개(琉璃瓶十六箇)’를 선물로 주었다. ‘술병’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술이 분명했다. 몽티니 영사가 술을 실은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류는 외교 예절에서 불가결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몽티니 영사가 조선 사람을 접할 때 술자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19세기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의 다른 기록을 보면 ‘조선인들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술을 가져다 주니까 서로 말이 통하며 일이 잘 풀렸다’는 수많은 기록이 있다. 비금도에서 현지 관료들은 몽티니 영사가 조선과 통상 요구를 하거나 선교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사람들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더 쉽게 대화하게 되었을 것이다.

몽티니 영사가 가져온 프랑스 술병은 보존되지 않았다. 반면에 몽티니 영사는 비금도에서 선물로 받은 갈색 옹기 주병(酒瓶) 3개를 본국으로 가져갔다. 몽티니는 그 술병들을 1856년에 세브르 국립 도자기 박물관에 기증했다. 본인은 2015년 박물관에서 열린 한국관련 전시회에서 우연히 옹기주병 2개를 발견했다. 그리고 금년 7월 11일, 목포대 사학과 정재현 교수와 함께 박물관을 다시 방문했을 때 나머지 한 병을 더 발견하였다.

나가는 말 : 나르발호의 역사적 의미

과연 비금도에서의 첫 만남이 한국과 프랑스의 관계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르발호 사건은 프랑스와 조선이 수교를 맺기도 전, 한 서양 외교관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이전에도 조선땅에 들어간 프랑스인은 있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비밀리에 입국했었고, 프랑스 해군장교도 조선 앞바다에 나타난 적이 있다. 그런데 프랑스 외교관으로서는 몽티니 영사가 처음이다. 특히 몽티니 영사가 전라도 현지 관료를 만남으로써 공식적으로 양국의 관료가 만나게 된 것이다.

14) “Le Chef principal de l’île et quatre autres mandarins supérieurs, avec une foule de secrétaires d’officiers et de domestiques, vînrent à bord, après les avoir fait saluer de trois coups de canon, je les reçus sous une tente dressée à l’arrière de la Lorcha. Là pendant plusieurs heures, je les fis manger et s’abreuver de différentes sortes de vins, de champagne et de liqueurs fortes ; il est rare de voir des hommes boire comme les Coréens ; ils sont passionnés pour les vins et surtout les spiritueux; nos sangouans non contents de prendre pour eux-mêmes, donnaient encore à leurs domestiques.”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첫 만남을 주로 선교사 박해, 아니면 병인양요 같은 갈등이나 충돌로 생각한다. 그래서 한불 관계의 첫 만남이 갈등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사실은 비금도 포경선의 표류사건을 통해 한불 관계의 시작은 갈등보다는 인도주의적인 만남이었고, 음식과 술이 있는 문화교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르발호 사건이 전쟁이나 박해 같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화합의 자리로 끝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비금도에서 ‘우호적 만남’과 ‘화려한 송별파티’가 있었지만 그 시야는 사실 한계가 있다. 프랑스 사람이든 조선 사람이든 19세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우월감과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졌다. 조선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진 몽티니가 여러 번 현지 관료들은 협박하였다. 또한 몽티니가 상하이에 돌아가 도처에 ‘조선에 간 영웅’, 그리고 ‘조선을 개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자신을 묘사하였다.

게다가 몽티니는 1851년 이후, 당시 프랑스 황제인 나폴레옹 3세와 외무장관에게 해마다 프랑스와 조선이 수교를 맺어야 한다고 보고서를 보냈다. 프랑스 포경선원과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조선을 개항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철종(1849~1863) 때 천주교 탄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선교사의 박해는 더 이상 조선 개항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핑계가 될 수 없었다. 대신 나르발호 사건으로 조선 개항의 새로운 경제적·책략적 원인이 생긴 셈이었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조선의 천연 자원과 물적 자원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 요구를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런 상황 하에 한반도 연안의 고래는 조선 왕국 개항의 유일한 경제적 이유가 되었다. 또한 포경선원의 안전과 물자 공급을 위해 한반도에 다수 기착 항구가 필요했다. 그것이야말로 조선 왕국 개항의 책략적 원인이 되었다. 만약 한반도 서해에 기착 항구가 생긴다면 청나라의 수도였던 북경에 더 쉽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동해에 기착 항구가 있다면 프랑스해군과 대적한 러시아의 남하 진출을 견제할 수 있었을 거라 여겼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조선과 수교협상을 해야 한다는 몽티니 영사의 요구를 계속 무시했다. 당시 나폴레옹 3세나 외무부 장관에게 한반도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동아시아의 주된 관심사는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의 개항이었다.

남은 과제는?

본인의 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나르발호 사건의 전체 과정이 재구성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남은 과제가 있다.

- 조선측의 더 많은 관찬과 사찬(私撰) 자료 수집의 필요성.
- 수중 고고학자와 함께 난파된 나르발호의 흔적을 찾는 것.
- 샴페인과 조선 술의 종류를 알아내는 것.
- (그리고 본인 저서의 한국어 번역본)

19세기 고문서에 기록된 한·불 교류, 한국을 찾은 프랑스인

HISTOIRE FRANCO-COREENNE ENREGISTREE DANS DES DOCUMENTS ANCIENS AU XIX^e
SIECLE LES VOYAGEURS FRANÇAIS EN CORÉE AU XIXE SIÈCLE

오 영 교 (Youngkyo Oh)

Agence Corée Presse Paris
IEP, Science Po Toulouse DEA

한국은 19세기 초까지 프랑스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다.

세상 끝자락에 고립된 한국은 항해사, 외교관, 학자,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공헌 덕분에 안개를 걷어내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La Corée demeure une terre inconnue des Français jusque dans la première partie du XIX^e siècle.

Isolée aux confins du monde, elle ne sort que très progressivement de ses brumes, grâce aux contributions successives de navigateurs et de diplomates, de savants et de missionnaires.

프랑스의 호기심은 상업 매장, 새로운 지하자원에 대한 접근, 항해 가능한 경로의 인식과 가톨릭 신앙의 전파에 관한 계획이 섞여 있었다.

16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서술과 분석에 이어 망설임을 동반한 직접적인 관찰로 넘어가는 시기로 프랑스인들의 직관과 확신이 펼쳐지는 기나긴 여정의 시간이었다.

À la curiosité universelle se mêle celle concernant débouchés commerciaux, accès à de nouvelles ressources, reconnaissance des routes navigables ou propagation de la foi catholique.

De la fin du XVI^e jusqu'au début du XX^e siècle, c'est un long chemin qui déroule ses intuitions et ses certitudes, passant de l'hésitation à l'observation directe, préalable à la description et à l'analyse.

한국은 오랫동안 접근이 어려운 국경이 없는 땅으로 남아 있었으며 한국 관련 지식은 아주 단편적이었다. 16세기 말, 한국을 코레이(Coray)로 표기했고, 한국의 존재를 언급한 최초의 기록은 매우 간결했다.

16세기(1592-1597) 한국은 일본 원정단들로 구성된 서양인들이 늘어놓은 설명과 애매모호한 지리적 묘사를 통해 우연히 등장했을 정도다.

게다가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빈약한 지식은 추측 이상을 허용하지 않았고 오류는 매우 점진적으로만 수정되었다.

La Corée resta longtemps une terre escarpée et sans bords, dont la connaissance restait des plus fragmentaires. Les premiers récits mentionnant l'existence d'une terre de Corée, ou Coray, à partir de la fin du XVIe siècle, étaient des plus laconiques.

La Corée apparaissait par incidence, au détour de récits occidentaux des campagnes japonaises du XVIe siècle (1592-1597) et de vagues descriptions géographiques.

D'ailleurs, la maigre connaissance que l'on en avait ne permettait guère que des supputations et les erreurs ne furent que très progressivement corrigées.

1639년, 쇼군 도쿠가와가 공포한 기독교 금지와 일본 열도 폐쇄 정책 이후 일본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인은 포르투갈인이 개척한 항로를 인정하고 명확히 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1641년부터 일본 무역을 독점했다.

Les itinéraires ouverts par les Portugais ont été reconnus et précisés par les Hollandais qui ont pris l'ascendant sur le commerce du Japon après l'interdiction du christianisme et la politique de fermeture de l'archipel japonais promulguée par le shogun Tokugawa en 1639 (sakoku).

La compagnie néerlandaise des Indes orientales possède le monopole du commerce du Japon dès 1641.

1653년에 Quelpaert 섬(제주도) 연안에서 이 네덜란드 선박 (Sperwer)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한국 땅을 신비하게 둘러싼 안개를 한꺼번에 훑어 낼만한 예외적인 기회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원주민(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사납고 적대적이라고' 알렸는데 위험한 나라의 이미지를 형성했다. 이는 나주목사와 몽티니 영사의 만남 이전까지 약 200년 가량 지속되었다.

한국에 잡힌 포로들은 포로 생활 13년 후, 7명의 선원이 연약한 편주를 타고 탈출하여 일본에 상륙한다.

선장 하멜 Hendrik Hamel(1630-1692)은 포로에 대한 설명과 국가에 대한 설명을 책으로 펴냈다. 생존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1668년에 출판된 이 책은 한국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해운에 대한 열광이 컸던 당시 기행문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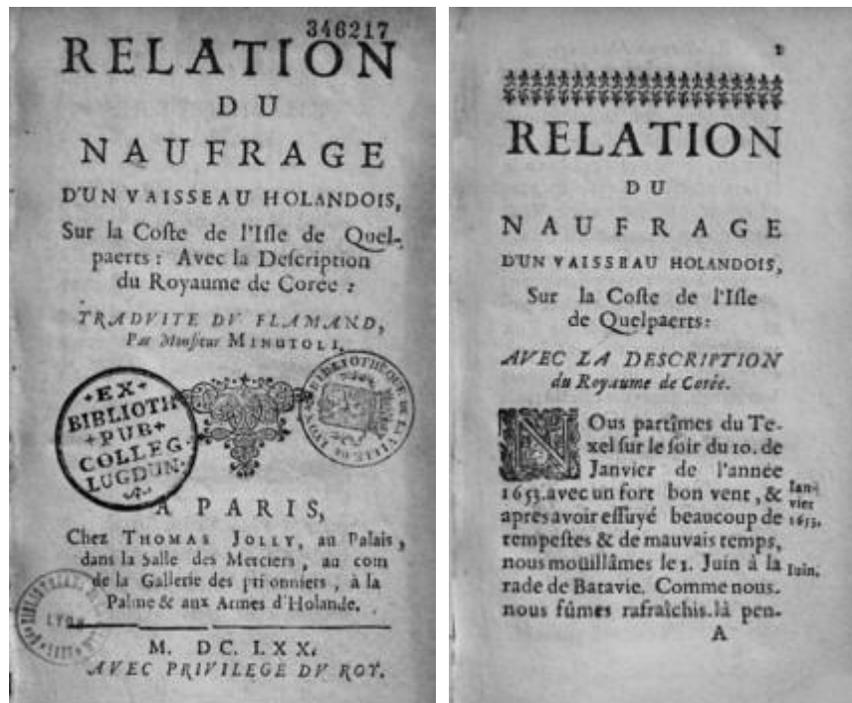
C'est justement la perte du vaisseau hollandais Sperwer sur les côtes de l'île de Quelpaert

(Cheju-do) en 1653, qui fournit une occasion, exceptionnelle et éphémère, de dissiper un temps les brouillards environnant cette contrée mystérieuse, tout en forant l'image d'un pays dangereux, dont les natifs (les Coréiens!) sont réputés farouches et hostiles aux étrangers. Cela a continué pendant environ 200 ans jusqu'à ce que le gouverneur Naju et le consul Montigny se rencontrent.

Après treize ans de captivité, sept marins parviennent à s'échapper sur un frêle esquif pour aborder au Japon.

Le commissaire de bord, Hendrik Hamel (1630-1692), de Gorcum, en tire un récit de captivité et une description du pays.

Publié en 1668, au retour des rescapés sur leur terre natale, ce texte connaît un vif succès, tant du fait de la rareté des connaissances sur la Corée, que de l'engouement naissant pour les récits de voyage et les fortunes de mer.



하멜 표류기 1670년 발간 붙어판,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1670년 초에 << Relation du naufrage d'un vessel dutch sur la côte de l'île de Quelpaert >> 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는데 조선왕국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영문판으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Dès 1670, la Relation du naufrage d'un vaisseau hollandais sur la côte de l'île de Quelpaert est traduite et publiée en français, tandis que la description du royaume de Corée, qui lui fait suite, fait l'objet d'une édition anglaise séparée.



여수 하멜박물관

프랑스는 계몽주의와 백과사전 시대가 되면서 한국을 확실하게 드러내게 되는데 중국인과 만주인 사이의 혼동에서 벗어나게 했다. 중국과 그 변방에 대해 직접 체험했던 예수회 선교사들 덕분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

뒤할드Du Halde 신부의 책 중국 기록(The Description of China1735)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작은 혁명을 일으켰다.

À l'âge des Lumières, la connaissance de la Corée en France fait quelques progrès significatifs grâce aux missionnaires de la Chine, ces pères jésuites qui, sachant le chinois et souvent aussi le mandchou, purent se renseigner directement sur le céleste empire et ses marges.

La Description de la Chine, du Père Du Halde (1735), crée une petite révolution aussi bien chez les curieux que chez les philosophes, qui trouvent avec la Chine une civilisation évoluée, raffinée, non chrétienne, qui permet remises en question et relativisation, et donne même un souffle particulier aux arts et aux lettres en Europe occidentale.

프랑스 철학자인 볼테르Voltaire는 비록 종종 교회에 대해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신부들의 업적을 칭찬했을 정도다. 그의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친 이 백과사전 운동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또 이 중국 문화의 발견은 때때로 만주, 몽골 또는 티베트와 섞였지만 일반적인 설명, 역사, 철학을 통합하여 극동지식에 큰 기여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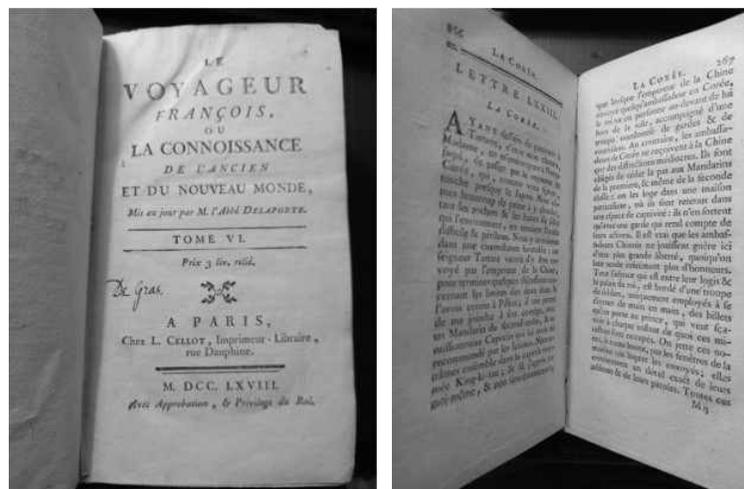
Voltaire, bien que souvent critique envers les ecclésiastiques, loua pourtant largement cette œuvre encyclopédique qui influença grandement ses travaux. Cette découverte de la culture chinoise, bien que parfois mêlée de scories mandchoues, mongoles ou tibétaines, unit description générale, histoire, philosophie.

한국에서 프레보 수도자 Abbé Prévost(1697-1763)의 여행 총서 Histoire générale des voyages (15 vol" 1746-1759) 가 얼마 지나지 않아 등장하는데, 그는 이 작업의 6권(1747)에서 하멜 Hamel의 기록과 레지 Régis의 편지를 모두 모아 한국 (Korea) 장을 완성한다.

La Corée apparaît peu après dans Histoire générale des voyages (15 vol" 1746-1759) de l'abbé Prévost (1697-1763), qui rassemble dans le volume six de cette œuvre (1747) à la fois la relation de Hamel et les lettres de Régis pour parfaire le chapitre « Corée ».

1768년, «여행자 프랑수아, 고대와 신대륙의 지식 Le Voyageur français: la connaissance de l'Ancien et le Nouveau Monde(6권)»이 출간된다. 저자는 프랑스 카톨릭 수도자 드 라 포르트 Abbé De la Porte(1714-1779)이다. 그는 중국 황제 사절단의 일원으로 집필했는데 공식적으로 조선(한국)에 체류한 사람이다. 1768년 파리에서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프랑스 왕 루이 15세 승인이 된 페이지 삽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 차원의 보고였다. 1768년은 조선 영조 44년 통치 시절이다. 책 270쪽 «아들을 출산한 첩은 왕비로 즉위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인 군주다. 또한 당시 조선 풍속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Le Voyageur français : la Connaissance de l'Ancien et le Nouveau Monde (6 vol" 1768) de L'Abbé De la Porte(1714-1779), L'auteur, en tant que prêtre français, était membre de la délégation de l'empereur chinois et écrivait alors qu'il séjournait officiellement à Joseon (Corée). En 1768, lors de la publication de ce livre à Paris, une page fut insérée indiquant que l'autorisation avait été obtenue du Roi de France. Et 1768 était la 44e année du roi Yeongjo de la dynastie Joseon. À la page 270 du livre, il est noté que "Quand un fils est né d'une concubine, elle a été installée comme reine. Yeongjo était le monarque qui a tué son propre fils, le prince héritier Sado. De plus, le livre détaillait les coutumes de Joseon à l'époque.



1768년 파리에서 출판된 한국관련(256-298 P.) 여행자 프랑수아, 고대와 신대륙의 지식(소장 : 한불통신)

과학과 문자에 대한 보편적인 호기심이 다시 태어난 이 계몽주의 시대에도 위대한 과학적 항해술이 발달한다. 따라서 천문 기술 L'Astrolabe과 나침반 La Boussole 발명은 더 많은 항해를 기여했다. 루이 16세 지시에 따라 프랑스 함장 라 페루즈 La Pérouse(1741-1788?)는 극동을 항해한다. 한국 해역 가운데 울릉도 및 독도 해안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다.

Ce temps des Lumières, renaissance de la curiosité universelle pour les sciences et les lettres, voit aussi la continuation des grandes circumnavigations scientifiques. Ainsi L'Astrolabe et La Boussole aux ordres de La Pérouse (1741-1788 ?), croisent dans les eaux coréennes, Au large des côtes de l'île de Cheju-do et offrent description intéressante des rivages du pays, qui est l'une des Premières observations directes de la péninsule.

이어 19세기 프랑스 포경선들은 한국을 항해한다. 그 중 하나인 리앙쿠르호는 1849년 이 해역을 항해하다가 독도와 울릉도를 발견한다. 프랑스인들은 발견자의 이름을 따 당시 Rochers Liancourt 라고 썼다.

Les premiers navigateurs du xixc sont britanniques, Maxwell et Hall8. Pourtant, des baleiniers français viennent naviguer dans les parages coréens. L'un d'eux, le Liancourt, naviguant en ces eaux en 1849, découvre deux îlots destinés à devenir l'enjeu d'un litige territorial brûlant entre la Corée et le Japon. Il s'agit de Tokdo, ou Rochers Liancourt.

1851년 4월 또 다른 고래잡이 나르발호는 태풍으로 인해 전라도 앞바다 비금도에 좌초된다. 일부 생존자들은 이곳이 악명 높은 조선(그들 발음 Tiosane 또는 Tiosang)이라는 사실을 알고 카누를 타고 탈출하여 상하이 근처에 상륙한다. 샤를 드 몽티니(Charles de Montigny, 1805-1868) 프랑스 영사는 프랑스 조난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배를 전세 낸다. 그는 많은 자연적인 어려움, 특히 심각한 초기 항해 오류가 있었지만 무사히 목표지에 도착한다.

En avril 1851, un autre baleinier, le Narval, usé par les campagnes dans le Pacifique, s'échoue sur l'île de Bigeum (Bigûm), au large de la province de Jeolla (Chôlla-do). Certains rescapés apprennent que ce lieu se nomme Tiosane ou Tiosang, estiment en savoir assez et s'échappent sur un canot, pour toucher terre près de Shanghai. Charles de Montigny (1805-1868), le consul de France, affrète un navire pour aller chercher les naufragés français. Il atteint son but après bien des retards, notamment une grave erreur initiale.

2023년 5월 2일, 한국과 프랑스는 파리의 세브르 도자기 박물관에서 첫 외교적 수교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루 교수는 여러 기록을 찾아냈고 이를 논문에 발표한다. 172년이 지났지만 첫 외교적 만남인 몽티니 영사와 나주목사가 제공한 한국산 술병이 프랑스 국립도자기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한불수교 130주년 도록에 실린다.

Le 2 mai 2023, la Corée et la France ont organisé un événement au Musée de la céramique de Sèvres à Paris pour marquer la première relation diplomatique. Après le 172e anniversaire, des archives diplomatiques ont été découvertes et ainsi qu'une bouteille de Makgeolli coréen offerte par le consul Montigny et selon la mémoire du professeur Roux.



2023년 5월 2일 한불 첫 외교 만남 기념식의 한 장면으로 1852년 프랑스 난파 선원과 함께한 나주목사를 연출한 장면, 장소는 프랑스 파리 국립 세브르 도자기 박물관(사진 : 한불통신)



1851년 나주목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술병은 프랑스 도자기 박물관에서 한국 소장품 1호가 된다. (술병 사진 : 한불통신)

한국인과 기독교의 첫 접촉이 1601년부터 베이징 궁정의 사절단을 통해 가능했다면 최초의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18세기 말이었다.

Cependant, le zèle missionnaire aidant, une poignée de religieux, bravant l'interdit fait aux étrangers de pénétrer en Corée, s'est mise en devoir d'y prêcher la bonne parole. Si les premiers contacts des Coréens avec le christianisme ont été possibles dès 1601 par le biais des ambassades à la cour de Pékin, c'est à la fin du XVIIIe siècle que la première communauté est fondée.

그러나 선교사의 열성적인 도움으로 소수의 종교인들이 외국인 입국 금지령을 무시하고 한국에서 좋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19세기 초, 한국에서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동안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러시아인들을 상쇄하기 위해 가능한 파트너로 새로이 인식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대원군(섭정)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1866년에 신자, 사제, 선교사, 약 8,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처형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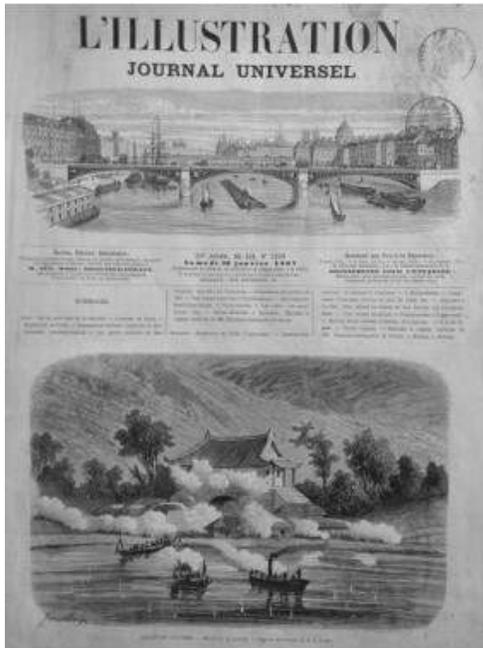
Au début du XIXe, les missionnaires français sont un temps perçus comme des intermédiaires et des partenaires possibles, en vue de contrebalancer la descente des Russes depuis la Sibérie. Le Taewôn-gun (Régent) fait ensuite volte-face, persécutant les chrétiens. Fidèles, prêtres et missionnaires, quelque 8,000 chrétiens sont mis à mort en 1866.

주중 프랑스 대사는 자국민 암살 사건에 대응하여 함대 사령관 로제 Roze 제독(1812-1883)에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돕고 배상을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프랑스 국가 차원의 승인 없이 계획한 원정은 쫓아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승리로 돌아갔다. 강화도에 상륙한 미약한 원정군은 곧 한국의 호랑이 사냥총 부대에 패했고 함대는 곧 닥칠 겨울 바다를 떠난다.

En réponse à l'assassinat de ses ressortissants, l'ambassadeur de France en Chine charge l'amiral Roze (1812-1883), commandant de l'escadre de Chine, de secourir les chrétiens de Corée et de demander réparation.

Conçue à la hâte et sans l'aval de Paris, l'expédition tourne vite court. Le maigre corps expéditionnaire débarqué sur l'île de Kanghwa est bientôt défait par une troupe de mousquetaires coréens chasseurs de tigres, et la flotte quitte bientôt ces eaux inhospitalières.

Malgré cet échec, l'expédition est l'occasion de collecter des documents. Divers membres de l'expédition présentent au grand public comme aux académies leurs souvenirs et le fruit de leurs observations, qui complètent ceux glanés par le contre-amiral Guérin, sur La Virginie en 1856. L'Illustration donne dès l'année suivante le récit des événements, tandis que les diverses publications sur l'expédition de Corée s'échelonnent de 1867 à 1883.



1866 강화도 침략, 병인양요, L'ILLUSTRATION 1867(사진 및 소장 : 한불통신)

전직 해군 장교에서 화가로 변신한 앙리 주베르(Henri Zuber)는 "한국 탐험"이라는 기사를 1873년에 여행 및 모험 문학으로 정리해서 '르 투르 뒤 몽드(Le Tour du monde)'에 병인양요를 다시 게재한다. 저자는 토벌 원정의 모험과 결합하여 한국에 머물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L'article «Une expédition en Corée», par Henri Zuber, ancien officier de marine devenu peintre, est publié en 1873 par ce fleuron de la littérature de voyages et d'aventures qu'est Le Tour du monde. L'auteur y raconte ses impressions de séjour en Corée qui se conjuguent avec les péripéties de l'expédition punitive.

본문에는 저자가 그린 10개의 판화와 지도가 함께 들어 있다.

주베르Zuber의 설명은 매우 짧지만 직접 본 여행자의 솔직함과 현장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섬사람들은 어느 집을 가도 책들이 있었으며 청동으로 된 놋그릇들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Fait marquant, le texte est accompagné de dix gravures et d'une carte de l'auteur.

Le récit de Zuber, bien que très bref, est animé et soutenu par la candide certitude du voyageur qui a constaté de visu. Il a dit que chaque maison de l'île avait des livres et des ustensiles en bronze et en cuivre.

Henri Zuber
UNE EXPÉDITION EN CORÉE
 Le Tour du monde, Volume 25, 1873 (p. 401-416).



Le palanquin : Costume de pluie des Coréens. — Dessin de A. Marie, d'après M. Zuber.

UNE EXPÉDITION EN CORÉE

PAR M. H. ZUBER, ANCIEN OFFICIER DE MARINE.
 1866. — TEXTE ET DESSINS INÉDITS.

해군장교 앙리 쥬베르 Henri Zuber가 기록한 병인양요,
 Le Tour du monde 1873. (소장 : 한불통신)

한국 발자취에 대한 심층 연구, 지리적 관찰 및 민족지학적 스케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극도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1866년 로제 Roze 제독의 원정은 성능 좋은 총검으로 강화도 성을 불태웠고 몇 권의 책을 장물로 가져갔다. 프랑스인들의 한국 탐험에는 미래가 없었고 극소수의 전문가만이 압수된 책을 해독할 수 있었다.

En dépit de l'étude approfondie des marches de la Corée par ces pionniers, des observations géographiques et des croquis ethnographiques, la péninsule reste toujours extrêmement méconnue. L'expédition de l'amiral Roze, en 1866, a bien permis d'en éclaircir certains aspects et d'en rapporter quelques livres, à la pointe de baïonnettes à l'éclat fugace. L'expédition reste sans lendemain, et bien rares sont les spécialistes capables de déchiffrer les livres saisis, bien que de Rostaing espère que les ouvrages saisis à Kanghwado permettront d'en savoir plus sur le pays.

그러나 프랑스 선박이 한국의 서해안과 “서울 한강”의 일부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1868년 동양어학부에서 일본어를 가르쳤던 움직이지 않는 여행가 레옹 드 로스니(1837-1914)는 한문 논문으로 구성된 “한국의 지리와 역사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낸다. 같은 해, 그는 ‘아시아인들에 관한 잡다한 지식’에서 다시 하멜의 이야기를 요약했다.

Pourtant, malgré la reconnaissance des côtes occidentales de la Corée et d'une partie de la « rivière de Séoul » par les navires français, on sait encore bien peu de chose sur le pays. 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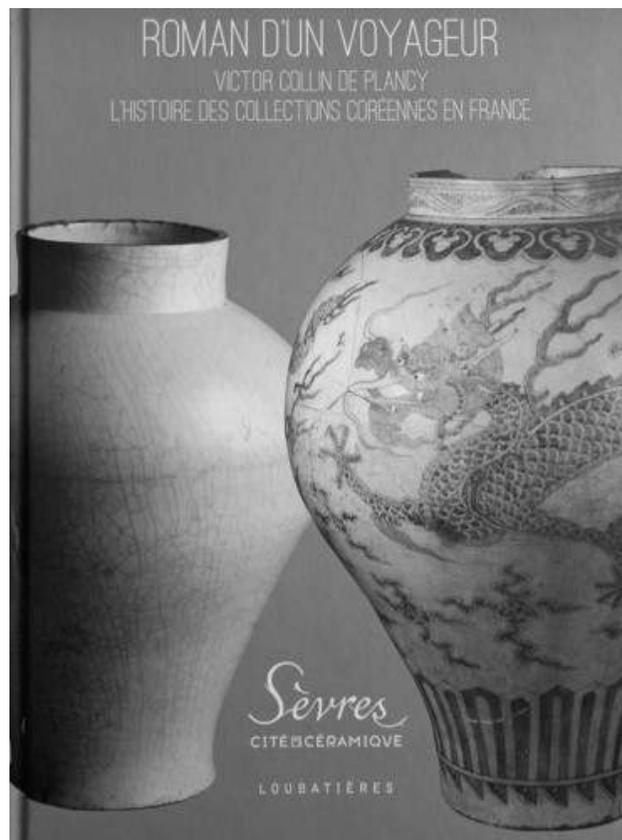
1868, Léon de Rosny (1837-1914), voyageur immobile qui enseigne le japonais à l'École des Langues orientales, publie une présentation intitulée «Sur la géographie et l'histoire de la Corée», composée à partir de traités chinois. La même année, il résume encore le récit de Hamel, dans un ouvrage de miscellanées asiatiques.

학계의 게시판에는 한국에 대한 많은 정보, 간단한 공지 사항, 다양한 메모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된 문서에서 번역된 정보가 게시될 뿐이었다.

Les bulletins des sociétés savantes publient de nombreuses informations sur la Corée, brèves annonces, notes diverses, informations généralement traduites de l'anglais.

미국인과 영국인이 침입에 돌입한다. 이들에 비해 프랑스군은 뒤처졌지만 1886년 6월 마침내 우호, 상업, 항해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다.

Américains et Britanniques s'engouffrent dans la brèche. Les Français sont à la traîne mais rattrapent leur retard. Un traité d'amitié, de commerce et de navigation est enfin signé en juin 1886.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도록, 한국 관련 컬렉터 콜랭드 플랑시의 기증
중심으로 이룬 세브르 박물관의 전시(사진 및 소장: 한불통신)

프랑스-한국 우호조약을 협상한 아놀드 비시에르(1858-1930)는 젊은 외교관 빅터 콜랭(1853-1922)에게 이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지원하도록 격려한다. 그는 1886년 5월에 보낸 편지에서 “서울은 분명히 매우 흥미로운 도시다. 나는 당신이 서울 외교관으로 임명되기를 권합니다.”고 언급한다. 중국어로 학위를 받은 빅토 콜랭은 1877년부터 중국에서 외교 통역을 한 극동 전문가로 한 불간 조약 협상을 수행한다.

Arnold Vissière (1858-1930), qui négocie le traité bilatéral franco-coréen, incite un jeune diplomate, Victor Collin (1853-1922), à se porter volontaire pour ce pays si mal connu. «Séoul», affirme-t-il dans une lettre datée de mai 1886, «est décidément une ville très intéressante. Je vous conseille de vous y faire nommer» écrit-il. Victor Collin, diplômé de chinois et interprète diplomatique en Chine depuis 1877, a suivi les négociations menant au traité franco-coréen.

1888년, 프랑스 공교육부로부터 민족지리학 사절단이 되어 샤를 바라Charles Varat(1842 -1893)는 한국에 파견된다. 그는 전문 여행자이자 탐험가이고 민속학자였다. 교육부는 그의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식 인증서를 제공한다.

샤를 바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한국 여행기를 펴냈을 뿐만 아니라 트로카데로Trocadéro에서 전시를 개최하고 기메박물관Musée Guimet에서도 전시한다. 그런 다음 다양한 한국 관련 민족지학 자료를 프랑스 국가에 기증한다. 샤를 바라의 요절로 그는 한국에 대해 계획한 책을 쓸 수 없었지만 1892년에 Le Tour du monde에 멋진 기사가 게재된다.

Charles Varat (1842 P-1893) 25 fut chargé en 1888 par le ministère français de l'Instruction publique d'une mission ethnographique en Corée.

C'était un voyageur professionnel, mi-explorateur, mi-ethnologue, et le ministère n'intervint semble-t-il que pour lui procurer une accréditation officielle pouvant faciliter son entreprise. De son voyage en Corée, de Séoul à Pusan, il rapporta non seulement un récit de voyage, mais encore divers matériaux ethnographiques qui furent exposés d'abord au Trocadéro, puis au Musée Guimet. Le décès prématuré de Charles Varat l'empêcha de rédiger le volume qu'il projetait sur la Corée, mais il publia en 1892, dans le Tour du monde, un récit aussi plaisant qu'instructif sur son expérience coréenne.

바라Varat는 콜랭드 플랭시Collin de Plancy의 세심한 뒷받침 덕분에 모든 곳에 통과 가능한 정부 직인 여권을 얻게 되어 한국 내륙을 공식적으로 여행할 수 있었던 최초의 프랑스인이 된다.

Varat의 한국 여행 자료는 그를 격려한 기관의 후원과 당시 여행의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예외적 사료로 남아 있다.



샤를 바라 Charles Varat (1842 P-1893)는 최초로 한반도 전체를 여행했다.
금강산 여행도 프랑스 신문에 기고했다.(사진 : 위키피디아)

청일전쟁, 동학혁명, 그리고 러일 전쟁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국제 문제들로, 프랑스와 서구의 관심이 한국에 새롭게 쏠리기 시작했다. 언론인, 민족학자, 여행자들에게 이 새로운 극동 게임 속 이 해관계에 처한 힘없는 이 외딴 한국 영토에 관심이 쏟아진 것이다.

Varat est le premier français à pouvoir voyager officiellement dans l'intérieur du pays, grâce à un laissez-passer, revêtu de tous les cachets mandarinaux nécessaires, obtenu grâce aux bons soins de Collin de Plancy.

Le voyage de Varat est encore exceptionnel, tant du fait de son patronage institutionnel qu'en raison des difficultés de voyage. Aussi la connaissance de la Corée en France reste-t-elle malaisée et lacunaire, en dépit des efforts des orientalistes, notamment ceux de Maurice Courant (1865-1935), qui publie en 1894 le premier volume de sa monumentale Bibliographie coréenne, tableau littéraire de la Corée, texte qui fait encore autorité aujourd'hui, et dont l'idée fut soufflée au jeune élèveinterprète par Collin de Plancy lui-mê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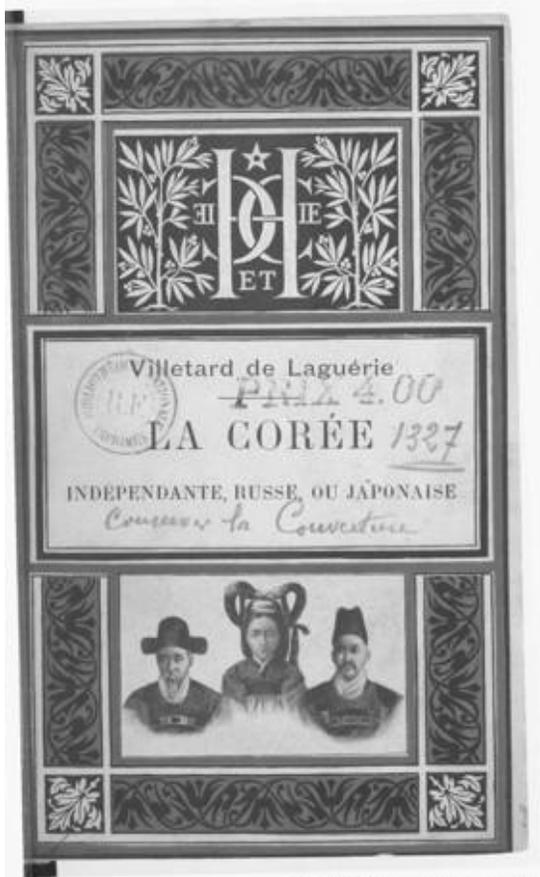
그러나 언론은 달랐다. 청일전쟁, 또 다른 시대의 특권을 고수하는 낯고 병든 중국과 서구의 사상에 개방된 것처럼 보이는 개조된 일본의 대결속의 한국은 소수의 언론인들의 관심만 불러 일으켰으니 말이다.

그 중 한 사람인 비유타르 드 라게리(Villetard de Laguérie, 1858-1913)는 원래 콜레주 생 바브 Collège Sainte-Barbe의 역사 및 지리학 교수로 프랑스 정부 산하 식민지부 후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하여 지리학자와 무역상 모두에게 유용한 한국의 풍경을 그렸다. 그의 책 ‘짧은 일정’은 1898년 에야 출간된다. 당시 이 극동 지역의 긴장은 헤아릴 수 없고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비유타르 드라게리Villetard de Laguérie의 작업은 아셰트 출판사 Hachette가 발표하는데 한국에 대한 출판물이 드물었던 당시 매우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Ce sont les enjeux nouveaux nés des conflits locaux, guerre sino-japonaise, révolte des Boxers puis guerre russo-japonaise qui, ravivant l'intérêt français et occidental pour la Corée, incitent les journalistes, les ethnologues et les voyageurs, à s'intéresser à ce territoire excentré, enjeu reconnu et impuissant de ce nouveau grand jeu extrême-oriental.

Pourtant, la guerre sino-japonaise, affrontement d'une Chine archaïque et malade, accrochée à ses privilèges d'autre âge, et d'un Japon rénové, apparemment ouvert aux idées de l'Occident, ne suscite guère l'attention que d'une poignée de journalistes.



비유타르 드 라게리, 한국과 청·일, 러·일에 대한 분석 (소장 : 프랑스 국립도서관)

L'un d'eux, Villetard de Laguérie (1858-1913), à l'origine professeur d'histoire géographique au Collège Sainte-Barbe, a obtenu le parrainage du ministère des Colonies pour visiter la Corée et en dresser un portrait utile aux géographes comme aux commerçants. Séjour rapide, dont la synthèse ne sera publiée qu'en 1898, au moment où les tensions demeurent vives dans cet Extrême-Orient réputé insondable et compliqué.

Public par Hachette, l'ouvrage de Villetard de Laguérie est un événement d'autant plus notable que les publications sur la Corée sont rares.

“프랑스 여행가 Varat의 매우 평가할 만하고 매우 성실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쿠부랑 [원문 그대로]의 역사 및 철학적 연구는 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선정되었지만 우리는 외국인에게 개방된 항구의 이름만 알고 있었다...” 기자이자 지리학자 드라게리는 “[...] 달Dalle 신부가 쓴 매우 성실한 두 권의 한국 교회사는 선교사들에게만 알려졌으며, 의

도적으로 교육되길 바랐다.”고 명시했다.

«Malgré les travaux si estimables et si consciencieux du voyageur français Varat, les études historiques et philologiques de M. Couvrent [sic], plusieurs fois couronnées par l’Institut, on ne savait que le nom de ports ouverts aux étrangers...» constate le reporter-géographe. «[...] Les deux volumes de la très consciencieuse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par le père Dalle, n’étaient connus que des missionnaires, à l’instruction desquels ils étaient destinés» précise-t-il.

그러나 물성은 세상과 함께 변한다.

여행은 관광 가이드의 출판과 새로운 인프라의 출현으로 촉진된다.

증기선이 바다를 장악했고 영국, 프랑스(Messageries Maritimes), 일본(Mitsubishi) 회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Pourtant, les choses changent en même temps que monde.

Les voyages sont facilités par la publication de guides touristiques et par l’apparition d’infrastructures nouvelles.

Les steamers dominant les mers et les compagnies anglaises, françaises (Messageries Maritimes), japonaises (Mitsubishi) se livrent une féroce concurrence.

1900년 파리의 샹피옹Champion 서점은 클로드 드 피모당Claude de Pimodan의 극동아시아의 산책(Promenades en Extrême-Orient 1895-1998)을 출판한다. 마르세유 출발 요코하마, 보르모세, 페스카도레스 제도, 시베리아, 한국, 중국까지의 여행 일기를 담고 있다.

La librairie Champion publie à Paris en 1900 les *Promenades en Extrême-Orient (1895-1998)* de Claude de Pimodan, carnet de voyage de Marseille à Yokohama, bormose, îles Pescadores, Sibérie, Corée et Chine, qui donne surtout quelques maigres impressions du port de Wônsan, d’ailleurs donné sous sa prononciation japonaise, Gensan.

한국은 만국박람회에 참가하면서 더 이상 먼 미지의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되었다. 1900년 파리의 에펠 탑 근처 한국관에는 한국의 책과 도자기, 종이, 악기 등을 전시했다. 계몽된 아마추어와 구경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호기심을 일으키는 장 한 가운데였다.

La Corée n’est plus tout à fait une lointaine inconnue : elle a exposé, à Paris, en 1900, auprès de la Tour Eiffel, dans un pavillon national, ses livres et ses céramiques, son papier, mille curiosités attirant le badaud ou amateur éclair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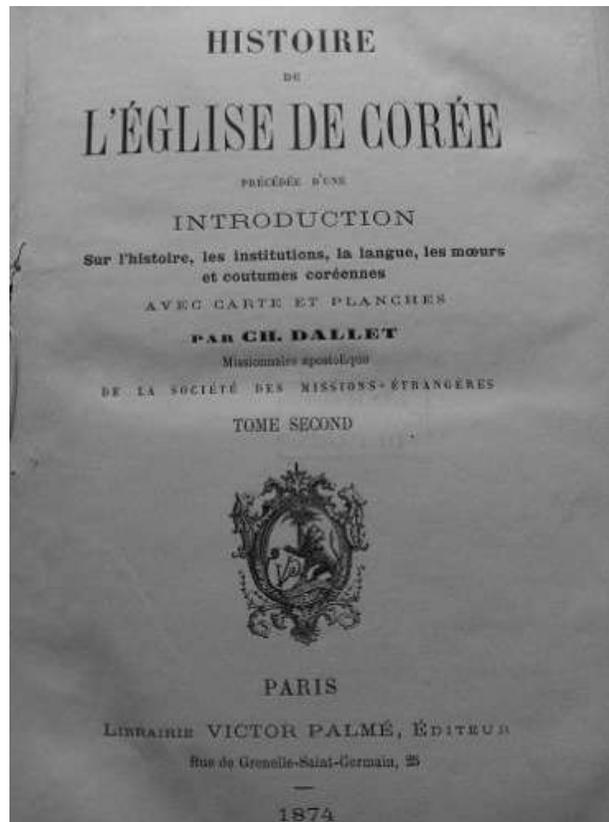
Le Petit Journal에 실린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에서 한국관 보도(사진 및 소장 : 한불통신)

1901년은 한국에 대한 지식 뿐만 아니라 프랑스 여행자들에게도 풍요로운 해이다. 1901년에 한국은 이제 이국주의와 상상력의 환상을 죽일 만큼의 국가로 알려졌다.

조르주 뒤크로 Georges Ducrocq(1874-1927)와 루이 마랭 Louis Marin(1871-1964)이 한국을 여행한다. 여행하는 동안 쓴 뒤크로의 글은 1904년에, 마랭의 글은 1975년에야 출판되었다. 특별히 루이 마랭은 한국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 최고의 한국 친구였다.

리델 주교 또한 1901년에 그의 한국 포로 생활(1878-1879)에 대한 기록을 출간한다. 그리고 우리는 샤를 달레(Charles Dallet)가 한국과 그 관습에 대한 소개로 서문을 단 아드리앵 로네(Adrien Launay)의 한국 지방과 프랑스 선교사들에 대한 출판물에 주목해야 한다.

1901 est une année faste pour les voyageurs français, comme d'ailleurs pour la connaissance de la Corée. En 1901, on en sait désormais assez sur le pays pour tuer les chimères de l'exotisme et de l'imagination. Alors que Georges Ducrocq (1874-1927) et Louis Marin (1871-1964) visitent le pays, leurs textes ne sont publiés qu'en 1904 pour Ducrocq, et seulement en 1975 pour Marin. Mgr Ridet publie aussi, en 1901, le récit de sa captivité en Corée (1878-1879). En particulier, Louis Marin était un meilleur ami qui a beaucoup aidé la Corée à sortir de la colonisation. Notons encore la parution en province de La Corée et les missionnaires français par Adrien Launay, ouvrage qui contient une introduction au pays et à ses coutumes par Charles Dallet.



한국교회사, 병인양요의 기록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Charles Dallet, 1874 Paris, 사진 및 소장: 한불통신

그러나 다시 한 번 한국 뉴스가 프랑스 신문을 지배하게 되는데 러일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쏟아졌다. 1904년, 한국 관련 책은 재출간된다. 러일전쟁으로 인한 한국 입장 관련 분석이 함께 실려 있다.

프랑스 특사단들은 다시 한 번 동양으로 달려가 전쟁 상황을 추적하는데 일부 프랑스인들은 회고록을 발간한다. 작가이자 여행가인 장 드 팡주(Jean de Pange, 1881-1957)가 한국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1905년에 다시 피에르 로티는 <프룬 부인의 세 번째 청년>에서 그의 한국 체류(1901)를 잠시 떠올리게 한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한국관으로 한국의 그 위용과 자태를 뽐낸 지 겨우 10년 지난 뒤, 1910년, 일본에 합병된다.

Pourtant, à nouveau, l'actualité s'impose. La guerre russo-japonaise provoque un regain d'intérêt pour la Corée, enjeu avéré de la guerre.

1904 voit la réédition de la Corée et la guerre russo-japonaise, du même auteur.

Les envoyés spéciaux se précipitent derechef en Orient pour y suivre les péripéties de la guerre, certains résidents publient leurs souvenirs, tandis que l'écrivain-voyageur Jean de Pange (1881-1957) offre sa vision de la Corée.

En 1905 encore, Pierre Loti, dans *La Troisième jeunesse de Madame Prune*, évoque brièvement son escale en Corée (1901). Hélas, la Corée succombe bientôt, annexée par le Japon en 1910, dix années à peine après avoir marqué son rang à l'exposition universelle de Paris.

2023년 5월 2일 172년 동안 잊혀졌던 한·불 외교 첫 만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가 제작한 우표들과 행사 기록

오 영 교 (Youngkyo Oh)

Agence Corée Presse Paris

IEP, Science Po Toulouse DEA



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기 박물관 @한불통신 2023-05-02 Paris France
1852-2023년 : 172년간 시공을 벗어나 한국 프랑스를 연결해 주는 우표 일러스트

첫 만남, 첫 잔 그리고 첫 증인

한 불간 첫 만남 17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표들을 제작했다.

우표는 서신교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과거부터 현재를 증거로 남긴다.

실제로 우표는 역사를 말해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징적인 기틀을 바탕으로 제작한 8개의 우표는 이 첫 만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 줄 것이다.

1851년의 사건을 되짚어 주는 이 우표들의 삽화는 현대성과 복고풍 터치를 가미한 것이다.

Première rencontre, Première verre, et Première témoin

Pour célébrer les 172 ans de la première rencontre franco-coréenne, La thématique choisie porte sur Les timbres.

Ces derniers symbolisent des échanges épistolaires, mais ils sont aussi témoins du passé ainsi que Du présent.

En effet, les timbres représentent un moyen de communiquer historique.

C'est à travers ce symbole que nous vous proposons de découvrir le récit de cette rencontre sous la forme de 8 timbres.

Ceux-ci retracent les événement de 1851 dont les illustrations mêlent modernité et touche rétro.



Scène 1 프랑스 고래잡이

옛날 옛적에 미지의 바다를 향해하고 먼 땅을 탐험하는 29명의 프랑스인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험을 상상하기는 커녕 고래잡이 포경선을 타고 바람 따라 항해 중이었다. 포경선 ‘나르발호’이다. ‘일각고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항해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선원들은 곧 고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의 배는 거센 폭풍우에 휘말렸다. 배는 그때까지 프랑스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섬의 해안에서 갑자기 침몰했다.

Scène 1 Le Baleinier Français

Il était une fois un groupe de vingt-neuf français voguant sur une mer inconnue et explorant des contrées lointaines. Loin de s’imaginer les aventures qui les attendaient, ils naviguèrent au gré du vent à bord de leur baleinier.

Le Narval. Alors que le voyage se déroulait paisiblement, et que les marins pensaient bientôt pouvoir chasser la baleine, leur embarcation fut happée par les vents violents d’une tempête. Le navire vint subitement s’écraser sur les côtes d’une île, qui était jusqu’alors, inconnue aux français.



Scène 2 비금도 도착

포경선의 침몰에도 동요하지 않았던 프랑스군은 육지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우아한 모자를 쓴 긴 머리를 가진 남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모르는 얼굴을 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선원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끌려갔다.

살아났다는 안도감에서 거의 회복되지 않은 프랑스인들은 이 불가사의한 순간에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 몰랐다.

Scène 2 L'arrivée sur L'île De Begum

Les français non moins secoués par le naufrage de leur baleinier, purent regagner la terre ferme et être épaulés par des hommes aux cheveux longs, coiffés d'un élégant chapeau. Mais qui étaient ces personnes aux visages inconnus ?

Sans plus attendre, les marins furent emmenés par ceux qu'ils considéraient comme des étrangers.

A peine remis de leur émotions, les français ne savaient pas quoi s'attendre dans un instant si mystérieux.



Scène 3 한국에서 첫 발자국

좌초된 선원들은 언뜻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새로운 바람이 그들의 호기심을 휩쓸었다. 스물아홉 명의 뱃사람들은 이름 모를 땅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했다. 이 땅의 주인은 공격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영토를 밟은 것에 대해 처벌할지도 모르는 일이지 않은가? 원주민들은 거주해야 할 오두막으로 그들을 데려갔다.

Scène 3 premiers pas en Corée

Alors que les passagers échoués devinaient au premier coup d'oeil qu'ils étaient loin de leur patrie, un vent de nouveauté balayait leur curiosité. Non moins inquiets du sort qui leur serait réservé, les vingt-neuf marins se questionnaient sur leur avenir dans ce pays au nom inconnu. Leurs hôtes ne semblaient pas agressifs, mais allaient-ils les punir d'avoir foulé leur territoire ? Les autochtones emmenèrent ces derniers dans des huttes où ils devraient demeurer.



Scène 4 중국으로의 탈출

당황스런 첫 순간, 다른 프랑스 사람들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탈출하기로 결심한다. 몇 명의 선원들은 구원군에 의존할 수 있다는 단 한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교통 수단 없이 이 섬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아홉 명의 용감한 선원들은 약간의 비스킷을 들고 형편없이 부서 질것 같은 카누를 타고 섬을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기적적으로 중국 해역에 도달하기까지 9일이 걸려 도착했다.

Scène 4 L'évasion vers la Chine

Les premiers instants de panique finirent par gagner quelques marins qui n'avaient qu'une idée en tête : s'évader afin de prévenir d'autres français et ainsi avoir recours à des renforts. Mais comment s'échapper de cette île sans aucun moyen de transport ? Neuf courageux membres de l'équipage décidèrent de s'enfuir de l'île à bord de simples et fragiles canots, avec quelques biscuits en guise de vivres. Neuf longs jours passèrent avant que les miraculés n'atteignent les eaux chinoises.



Scène 5 영사 선원들 구출하기로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기 힘든 나라에서 도망친 선원들은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 샤를 드 몽티니(Charles de Montigny)에게 놀라운 경험담을 공유한다.

동포들의 이야기에 화가 난 영사는 최선의 해결책을 생각하기까지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아마도 죽음의 위험에 처한 프랑스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결정한다. 그는 항해의 위험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선원들을 불러서 알려지지 않은 곳을 항해하도록 했다.

Scène 5 Le Consul à la rescousse

Les matelots s'étant enfuis d'un pays dont ils peinaient à prononcer correctement le nom, purent faire part de leurs incroyables aventures au consul français de Shanghai, Charles de Montigny.

Ce dernier, bouleversé par le récit de ses compatriotes, ne prit qu'un temps avant de réfléchir à la meilleure des solutions : il fallait sauver ces français probablement en danger de mort ! Il ne se laissa pas décourager par les dangers que représentait un tel voyage, et convoqua divers des marins pour naviguer au-delà des entières connues.



Scène 6 첫 만남

해양기후를 견디기에 약한 배를 이끌고 위험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지만 샤를르 드 몽티니 Charles de Montigny영사가 그 원정을 수행했다. 프랑스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반갑지 않은 나라를 발견할 것으로 예상한 영사는 그들에게 소개되었다. 20명의 프랑스인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의 놀라움은 어떠했을까?

샤를 드 몽티니가 조선(한국)이라는 나라와 우호적인 시민들을 알게 된 것은 그때였다.

Scène 6 Première rencontre

Après un périple chargé en péripéties causées par la météo et un navire peu résistant, l'expédition fut menée à bien par Charles de Montigny. S'attendant à découvrir un pays peu accueillant, peuplé d'hommes menaçants la vie des marins français, le consul fut présenté à ces derniers. Quel ne fut pas son étonnement lorsqu'il se rendit compte que les vingt français étaient bien traités.

C'est alors que Charles de Montigny fit connaissance avec le pays de Joseon (Corée) et de ses conviviaux citoyens.



Scène 7 첫 잔

샤를 드 몽티니(Charles de Montigny) 영사는 프랑스인들을 존중해 준 한국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조선 정부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영사는 호스트들의 친절함에 대한 고마움을 더하기 위해 한국 지도자 몇 명을 프랑스 음식의 향연에 초대했다. 이 축제는 두 사람이 음식과 음료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각자의 문화를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1851년 5월 2일 샴페인과 막걸리가 이들과 함께 마음껏 흘렀다.

Scène 7 Premier verre

Reconnaissant envers les coréens d'avoir traité les français avec égards, le consul Charles de Montigny adressa une lettre de remerciement au gouvernement de Joseon.

Afin de montrer davantage sa gratitude face à l'amabilité dont faisaient preuve leurs hôtes, le consul convia plusieurs chefs coréens à un festin composé de vivres françaises.

Ces festivités furent l'occasion pour les deux peuples de se découvrir et de partager un peu de leurs cultures respectives à travers des mets et des boissons.

Le champagne et le makgeolli coulèrent à flot le 2 mai de l'année 1851.



Première
rencontre
Premier
verre

scène 07
Premier verre

Scène 8 평화로운 출발

1851년 5월 2일은 한국인과 프랑스인의 기억 속에 기록되고 새겨졌다. 두나라 사람들은 관습도 언어도 믿음도 공유하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재회했고 식사 시간을 나누며 싹트기 시작한 우정을 나누었다. 첫 만남과 첫 술은 프랑스인들이 평화롭게 떠나고 한국인들이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해주었다.

Scène 8 Départ en paix

La date du 2 mai 1851 fut inscrite dans les annales et encreée dans des mémoires des hommes coréens et français. Bien que les deux peuples ne partageaient rien en commun, ni les coutumes, ni la langue ni les croyances, ils furent réunis dans la joie et partagèrent le temps d'un repas une amitié naissante. Une première rencontre et un premier verre permirent aux français de repartir en paix et aux coréens de conserver leur tranquillité.



조선후기 이양선과 나주목 비금도 표류 이국인

김 희 태

(前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1. 머리말

1851년(철종 2) 3월 이양선이 비금도에 난파되었는데, 대법란서국(大法輪西國, 프랑스) 배였고 선원은 29명이었다. 고래를 잡으러 항해하다가 풍랑으로 표도한 것이다. 이 가운데 9명이 상해로 가서 상해 영사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상해 영사는 제주도를 거쳐 비금도에 와서 나주목사와 만났다. 프랑스의 외교관 상해 영사와 조선의 지방관 나주목사의 만남은 당시로서는 양 국가간 첫 만남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의 검토가 이루어져 가리라 여긴다.

1851년 3월의 비금도 표도 프랑스 이양선에 대해서는 『비변사등록』 기사가 소개된 바 있고, 서양과 조선의 바다에 대한 글에서도 다룬 바 있다.¹⁾ 그리고 2023년 5월 2일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파리 세브르에 있는 국립도자기박물관에서 ‘역사 속의 한국과 프랑스, 그 첫 만남’ 행사가 열렸는데, 이후 이와 관련된 여러 보도자료가 참고가 된다. 이 행사는 피에르 엠마누엘 후(Roux, Pierre-Emmanuel)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의 연구가 시발점이 되었다.²⁾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서남해안 지역의 이양선 표도의 현황과 대응 정책, 그리고 나주목 비금도의 표류 이국인의 표류 과정과 이들에 대한 조치 등을 정리해 보겠다.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당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이해, 나주와 신안의 현장 이야기가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비금도 현장 경관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폭우가 내려 조사는 수월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조선시대 프랑스 배의 난파 당시의 경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³⁾

1)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신안군, 『비변사등록 신안군관계기사 자료집』, 1998., 127~128쪽.

박천홍,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서양과 조선의 만남-』, 현실문화, 2008., 494~498쪽.

2) 중국이나 프랑스 자료를 함께 연구하여야만 온전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지만, 필자의 부족함으로 이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상해 영사가 본국(프랑스)에 보고했던 문서 사본의 열람과 함께 도움말(2023.07.22)을 해준 정재현(목포대 사학과)교수께 감사드린다.

3) 참여는 양수경(미래문화교육연구소 FCC운영이사), 김선(사무국장), 은미숙(미래문화교육연구소), 윤지향(나주시 문화재관리팀장), 이재근(신안군 세계유산과 학예연구사)과 필자였다. 비금면사무소 박승권 부면장의 협조

2. 조선 후기 이양선의 표도

1) 이양선의 표도와 '신안'

이양선(異樣船)은 조선 후기에 연안 지역에 넘나들었던 정체를 모르는 배들로서 황당선(荒唐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뒤에는 주로 유럽을 비롯한 서양의 함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16세기 아시아 지역에 처음 나타난 서양 세력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다. 이어 네덜란드의 상선들이 동아시아를 오가기 시작하였다. 1653년(효종 4년) 헨드릭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하였다. 조선에 억류되었다가 1666년 탈출하여 네덜란드로 돌아갔다. 하멜은 밀린 임금과 보상금의 수령을 위해 타의에 의해 억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멜표류기』를 저술하였다.

19세기 조선에 접근한 이양선은 프랑스, 영국, 미국 등의 함선이나 어선이었다. 이양선은 조선에 통상을 비롯한 여러 요구를 해왔다. 프랑스의 경우 천주교의 자유로운 전파를 요구하였다. 이같은 요구와는 달리 바다에서의 항해는 필연적으로 기상과 연관될 수 밖에 없었고, 표도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마련이었다.

『비변사등록』에서 신안군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항목별 기사 건수는 145건인데 특히 표도인(漂到人, 표류민) 관련사항이 104건으로 71.7%에 이른다.⁴⁾ 신안군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⁵⁾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표도인 문제가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다.

표도인 문제는 표퇴(漂類)라고도 하며 비변사의 고유업무 가운데 하나였다. 이 표도인에 대한 처리는 『만기요람』의 소장사목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처리된 내용을 보면 그 규정과 거의 어긋나지 않게 처리되고 있다. 이는 표도인의 처리를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표도인의 처리에 대한 사목의 내용이다.

표도인(漂到人) : 이국인이 표착(漂着)한 보고서가 들어오면 뱃길이나 또는 육로를 불문하고 자기가 원하는데로 송환시키는 방침으로 아뢰어 하되, 피복 및 뱃길을 통과하는 동안의 식량과 잡인을 금하고 호송하는 제반 절차를 엄중 시달할 것이며, 표착인이 만일 경기(京畿)를 통과하여 갈 경우에는 홍제원에 들어온 뒤에 낭청을 파견하여 다시 사정을 사문(査問)하고, 피복과 잡종 물품을 따로 내어 주도록 한다. 전라도에서는 표착인[漂人]이 뱃길로 돌아 가기를 원하면 회송되는 공문을 기다릴 것 없이 바로 떠나 보내고, 뒤에 경과를 보고하도록 정종 계해년에 규례를 정하였다. 표착한 중국인이 육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내지인이면 따로 자관(咨官)을 정하여 호송하고, 만일

에 감사드린다. 당시의 답사 자료집으로 준비한 자료가 본고를 작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되었다. 미래문화교육 연구소·경문학사, 『비금도 역사 현장 자료집』, 2023.07.22.(유인물)

4) 부세·행정 15건, 목장, 흉전(恤典) 각 4건, 궁방도, 송정(松政), 설진(設鎭), 설읍(設邑) 각 3건, 조운 2건, 제언, 개간, 유배죄인 각 1건 등이다. 고석규, 『『비변사등록』과 신안군의 역사 연구』, 『비변사등록 신안군관계기사 자료집』, 앞책, 1998., 19쪽. 『비변사등록』은 1616년(광해군 8)부터 1865년까지의 254년간의 기사가 273책으로 규장각도서에 남아 있다.

5) 신안군의 섬은 27개가 보이며 145건 기사에서 중복된 섬을 분류하면 기사수는 184건이다. 이 가운데 섬별 기사 빈도수를 보면 흑산도(31), 임자도(25), 지도(21), 자은도(14), 우이도(13), 홍도(10), 하의도(9), 비금도(8) 순이다.

외지인이면 의주부[瀕府]의 통역관이 호송하고, 봉성(鳳城)에까지 가서 넘겨주고, 중국에 보내는 문서는 금군을 정하여 의주부로 내려보낸다.⁶⁾

이양선에 대한 문정과 조치에 일정한 규범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현지의 관리가 임의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782년(정조 6) 표류한 외국인에게 조선의 예의와 풍속을 보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왕명으로 이양선문정사례(異樣船問情事例)를 제정하고 연해의 제도(諸道)에 반포하여 여기에 준하여 이양선과 표류한 외국인을 문정하고 조치하도록 하였다.

하교하기를, “서해와 남양(南洋)을 막론하고 이국의 선척이 하나라도 표류하여 도착하는 일이 있으면 해당 지방의 읍재(邑宰)와 진장(鎭將)이 일을 내지 않는 경우가 드물어서 영곤(營圃)에서 파직하고 나문하라는 장계를 번갈아 등문하니 조정에서 제대로 수응(酬應)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는 다른 까닭이 아니라 문정하거나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것에 대해 일찍이 하나의 규범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번 호남의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일마다 문제가 생기고 잘못되었으니, 예사로운 왕래에도 오히려 이리한데 어떻게 저 외국 사람에게 예의가 있는 풍속으로 보여지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는 진실로 관계되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일정한 제도를 정해야 할 것이니 묘당에서 문적(文跡)을 거슬러 조사하고, 제도의 차이점을 서로 비교해서 문정은 어떻게 하며 접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응행(應行)할 법식을 뽑아 한 통(通)으로 엮어서 사례로 만들어 연해 제도에 나누어 주어 각각 이에 따라 준용하게 하라. 사례를 어기는 일이 아니면 변정(邊情)과 관계없고 영송(迎送)에 방해만 되는 작은 하자나 하찮은 과실은 일절 계속 논감(論勘)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례를 반사하여 보내는 날 아울러 말을 만들어 분부하라.” 하였다.⁷⁾

이 무렵 문정관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이양선의 출현과 외국인의 표류시 반드시 문정관이 파견되었다. 이 관직은 이양선이나 표류한 외국인이 나타난 연해지방의 수령이 일반적으로 겸임하였으며, 대읍(大邑)에서는 역관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1777년(정조 1) 비금도에 표류한 사람들을 문정한 내용에 따르면, 수로로 돌려보내면서 “입을 옷은 우수영의 휴번목(休番木)으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고 바람을 기다리는 사이에 양식 및 바다를 건널 양식은 연읍의 저치미(儲置米)로 넉넉히 제공하고, 소금·장·물고기·미역·땀나무·기름 등 물건도 넉넉하게 주도록” 하고 머물며 가는 사이에 잡인을 금하며 보호하는 등의 절차를 엄히 신칙하도록 분부한다.⁸⁾

이양선의 표도 사례와 표류 이국인 대한 조치 사례로 1851년 나주목 비금도의 대법란서국(프랑스) 고래잡이 어선 표류를 들 수 있다. '조불 우호 통상 조약'(1886년)이 체결되기 전에 프랑스의 외교관과 조선의 지방관이 두 나라의 문화교류를 한 역사적인 장소가 전라도 나주목 비금도, 현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비금도이다.

6) 『萬機要覽』 군정편1 비변사(備邊司) 소장 사목(所掌事目) (한국고전종합DB).

7) 『정조실록』 정조 6년 임인(1782) 4월 22일(무자).

8) 『국역비변사등록』 158책, 정조 1년(1777) 11월 12일(음).

2) 나주목 비금도와 신안군 비금도

비금도(飛禽島)는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의 중심 섬이다. 고려시대에는 영광군에 속했고 조선시대에는 전라도 나주목에 속했다. 『고려사』 지리지(영광)에 육창현(六昌縣)에 속한 ‘비이도(比余島)’ 기록이 있다.⁹⁾ 『세종실록』 지리지 영광군조에 나오는 피금도(被錦島)¹⁰⁾가 비금도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5권 나주목 산천조에 “비이도(飛余島) 주위가 30리이다.”는 기록이 있다.¹¹⁾ 『여지도서』에는 “비이도 둘레가 30리이며 편호는 369호, 남자 374명, 여자 424명이다”고 하였다.¹²⁾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 나주조에 비금도는 11개 마을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양선이 표도하고 선원이 체류한 지역과 나주목사가 프랑스 상해 영사를 만난 곳은 이들 마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비금도(飛禽島) : 광대촌(廣大村) 도청촌(都廳村) 도고촌(都庫村) 지동촌(池洞村) 수림촌(樹林村) 두목리(斗目里) 구기촌(舊基村) 서산촌(西山村) 한산촌(寒山村) 울전촌(栗田村) 노대촌(老大村)¹³⁾

『호구총수』 기록에는 비금도의 호구수가 406호(戶), 1,512구(口)(남 847구, 여 665구)이다. 비금도의 인구는 『여지도서』(1759년)에 798명이었는데 30년이 지난 기록인 『호구총수』(1789년)에 1,512명으로 크게 증가되었다.

『호구총수』에 비금도는 11개 촌락임으로 평균을 내 보면 36호 137구이다. 편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마을당 호구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양선의 표류는 호구총수 기록보다 60여년 뒤임으로 이보다는 늘어났을 것으로 보임으로 마을 당 40~45호, 140~150구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금도에서는 1671년(현종 12)에 주민들이 경작지를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주에 거주하는 사인(임상유 등)이 “비금도에서 여러 대 동안 전래되어 온 전장(田庄)을 궁가에 빼앗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50년 뒤 1721년(경종 원) 해송위방(海嵩尉房) 절수지 30결이 비금도 서변에 있는데 집안 대대로 전래된 땅이라는 정소를 나주 유학 임학 등이 사헌부에 올린다. 비금도 서변에 30결이 넘는 토지가 경영되었다고 하였는데 그만큼 농업 생산력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비금도 표도 이양선과 관련하여 ‘서면 울내촌’ 지명을 연계시켜 보면 체류한 이국인들에게 제공한 식량을 마련해 줄 수 있었던 여건이라 할 수 있겠다. 1738년(영조 14)에는 용동궁방(龍洞宮房)에 비금도 토지 95결 51부 2속이 절수되기도 한다.¹⁴⁾ 용동궁방은 명종(明宗)의 제1왕자인 순희세자

9) 『高麗史』 권57, 地理2 壓海郡 陸昌縣.

10) 『세종실록』 지리지 전라도 나주목 영광군조.

11) “飛余島。周三十里。” 『新增東國輿地勝覽』(1481/ 신증 1530년) 제35권 나주목 산천조.

12) 『輿地圖書』(1759년), 전라도 나주목 방리.

13) 『戶口總數』(1789년), 규장각 소장 奎1602) 나주.

14) 『羅州牧所在飛禽島田畝丁巳條執卜數爻成冊(乾隆 3年, 英祖 14年)』, 『龍洞宮雜成冊』(奎22003).

의 궁방이다. 1769년(영조 45)에 비금도의 궁방전은 해송위방에서 명혜공주방으로 이전되는데 중아의 내수사와 지방의 나주목에서 공주방의 전답을 타량하여 양안을 작성하는데 매득전답의 총량은 150결이었다. 이들 경작지는 비금도의 목장평(牧場坪), 우일평(右日坪)·도고촌평(都庫村坪), 도고두평(道古頭坪), 광대평(廣大坪), 후동평(後洞坪), 광대후평(廣大後坪), 시랑산(侍郎山坪), 지동평(池洞坪), 장망평(長望坪), 장내평(場內坪), 수림평(樹林坪) 등에 분포하고 있었다.¹⁵⁾ 이들 지역은 오늘날 비금도의 동북쪽에 해당되는 광대리, 가산리, 도고리, 지당리, 구림리 일원으로 확인된다.¹⁶⁾ 이같은 경작 사정으로 1864년 『대동지지』에는 비금도는 토지가 비옥한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⁷⁾

1887년(고종 24) 11월 10일에는 비금도가 도초도(都草島)와 함께 해남현(海南縣)에 소속된다.¹⁸⁾

1895년 윤5월 1일에는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로 개편되면서 비금도는 나주부(羅州府) 해남군에 속하게 된다. 1896년 2월 3일에는 완도군(莞島郡)이 신설되면서 영암군·강진군·해남군·장흥군에 속한 섬 210개(유인도 75, 무인도 135)가 편입된다.¹⁹⁾ 이에 따라 해남군에 속했던 비금도는 나주부 완도군 비금면에 속하게 된다.

1896년 8월 4일에 23부제가 폐지되고 13도제로 개편되면서 전라남도 완도군 비금면에 속하게 된다. 1897년 3월 7일에는 완도군의 비금도와 도초도가 신설된 지도군에 편입된다.²⁰⁾ 비금도는 전라남도 지도군 비금면에 속하게 된다.

1911년경의 자연 지명 자료를 정리한 『조선지리지자료』 지도군 비금면편 29개의 땅이름과 토산명이 보인다.²¹⁾

山谷名 : 西山, 竹峙山, 龍沼山, 孝子巖山

野坪名 : 道古坪, 龍沼坪, 輪[翰]山坪, 西山坪, 竹峙坪, 樹林坪, 屏巖坪, 池洞坪, 睡雉坪

渡津名 : 關廳津, 大頭津

酒幕名 : 大頭酒幕, 關頭酒幕, 西山酒幕, 睡雉酒幕

池名 : 龍沼

土産名 : 粳粍, 糯粍, 皮麥, 小麥, 豆, 太, 木花, 白鹽, 加沙里

1912년의 행정 지명은 비금면에 45개 동리가 기록되어 있다. 마을 지명이 확인되는 자료는 1789년의 『호구총수』와 이 1912년 자료이다. 『호구총수』의 11개 마을인데, 이 시기에는 45개로 증가된다. 프랑스 고래잡이 배가 표도했다는 ‘울내촌’은 이 기록에서도 확인되지는 않지만, ‘내촌

15) 『全羅道羅州牧所在明惠公主房買得免稅田畝飛禽全一島己丑改量成冊』(英祖45年(1769), 羅州牧 編, 奎18770)

16) 김경옥, 「조선후기 나주목 비금도 주민들의 토지운영 실태」, 『도서문화』 제19집, 2002, 59쪽·67~69쪽.

17) “飛禽島 土地肥沃” 『大東地志』(1864), 나주 산수.

18) 『국역비변사등록』 268책, 고종 24년(1887) 11월 10일(음)

19) 칙령 제13호 1896. 2. 3. 반포. 이때 지도군과 돌산군도 신설된다. 행정연혁은 김정호, 『지방연혁연구』-전남을 중심으로-, 1988. ; 윤여정, 『대한민국행정지명』제1권 전남·광주편, 향지사, 2009. 참조.

20) 칙령 제14호 1897. 3. 7. 반포.

21) 『조선지리지자료』(1911년(추정), 국립중앙도서관, 古2703-1-116)

(內村)’이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飛禽面：堂頭里，光大村，龍沼村，大頭里，道古村，羅拜里，佳朮里，牛山里，堂山里，池洞，新岱里，樹林里，松林里，龜基里，龍虎里，新村，新興里，基洞，舊項里，通井里，德大村，望洞，翰山里，西山里，古幕里，元坪里，內村，外村，月浦里，竹峙村，屏巖里，林里，大斗里，祥巖里，關廳里，水島，睡雉島，牛洗島，金儀島，黃島，松灘島，土莫島，老大島，京雉島，七發島²²⁾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도군이 없어지고 무안군에 편입되면서 비금도는 전라남도 무안군 지도면에 속하게 된다. 비금면은 13개리로 편제되는데 광대리(光大里), 용소리(龍沼里), 도고리(道古里), 가산리(佳山里), 지당리(池堂里), 구림리(舊林里), 신원리(新元里), 고서리(古西里), 덕산리(德山里), 내월리(內月里), 죽림리(竹林里), 수대리(水大里) 등이다.²³⁾

1969년 1월 1일 신안군이 신설되면서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에 속하게 되어 오늘에 이른다. 지금의 비금면은 유인도 3개소, 무인도 79개소로 구성되었다. 가구는 1,938가구(농가 1,630, 어가 61, 기타 247), 인구는 3,529명(남 1,868, 여 1,661)이다.²⁴⁾

3. 나주목 비금도 표류 이국인

1) 대법란서국 이양선의 비금도 표도

1851년 3월에 나주목 비금도에 표도한 이양선은 대법란서국[프랑스]의 고래잡이 어선[나르발호]이었다. 프랑스 북부 르아브르에서 출항하였는데 승선인원은 출발할 때 30명이었다. 『일성록』과 『비변사등록』 등을 참고하여 표도 여정을 정리²⁵⁾해 보면서 표도지 등 지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1851년(철종 2) 3월 1일(양력 4월 2일)²⁶⁾ 묘시(卯時, 오전 5시~7시) 영광군 홍농면 우포촌 뒤 바다에 이양선이 정박하였다. 영광군수 김덕근(金德根)과 법성첨사 이명서(李命瑞)가 배에 겨우 올라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에서 어떤 연유로 왔는가 필답으로 문정(問情)했다. 선원 가운데 한 사람이 답을 썼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 배는 6-7장(丈)이었고 머리와 꼬리는 모두 높고 가운데는 둥글었다. 길이는 25파(把)²⁷⁾였고 돛대는 3개를 달았다. 종선 6척은 배에 실려 있었는데

22) 조선총독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5.

23) 越智唯七編,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韓國地理風俗誌叢書189·190, 경인문화사, 1989)

24) 신안군청 누리집.

25) 박천홍,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서양과 조선의 만남』, 앞책도 큰 참고가 되었다.

26) 당시 조선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였고 프랑스는 오늘날 사용하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함께 표기한다.

27) 파(把) :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쓰는 말. 10자[尺]를 1파, 5자를 반파(半把)라 하였는데, 이 파의 수로서 배의 크기를 정하고, 그 크기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였다. 길이의 단위로 쓸 때는 ‘파’외에도 ‘발’, ‘뺨’, ‘아름’의 뜻이 있다.(박성훈편, 『단위어사전』, 민중서림, 1998.)

길이는 2파였다.

당시 영광군수 김덕근(金德根)은 1850년(철종 1, 경술) 7월 16일부터 1852년(철종 2, 임자) 6월 까지 영광군수로 재임하였다.²⁸⁾ 영광 우포촌은 지금의 영광군 홍농면 계마리 소와[牛浦] 마을 일원이다. 조선후기 면리제 편제하에서 영광군 홍농면(弘農面) 우포(牛浦)로 기록이 확인된다.²⁹⁾

1851년(철종 2) 3월 2일(양력 4월 3일) 축시(丑時, 오전 1~3시) 쯤 동풍이 불고 조수가 불어나자 영광군수와 법성첨사는 이양선을 지키게 했으나, 이양선은 서쪽을 향해 빠르게 떠나 갔다.

1851년(철종 2) 3월 3일(양력 4월 4일) 묘시(卯時, 5시~7시) 나주목 비금도 서면(西面) 울내촌(栗內村)에 이국선인 수십명이 갑자기 물골로 들어왔다. 비금도 풍헌(風憲) 양선규(梁善圭)와 요망군(瞭望軍) 장금철(張金哲)이 급히 가서 살펴보니 이국인 29명이었다. 문정을 하려 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고 글자가 같지 않아 어느 나라 어느 지방에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옷은 홍색 또는 흑색 담전을 입었고 큰배는 여러 곳이 부서졌는데 예미포(曳尾浦)에 표착하였다. 작은 배 3척은 세항포(細項浦)에 표착했다. 현감이 문정차 떠났고 우수사 구장화(具鏘和)도 우후와 역학을 보낼 것이니 그 사이 양찬(糧饌)을 주어 진휼할 것이라는 나주 겸임 남평현감 이정현의 장계가 3월 8일에 도달하여 전라감사 이유원이 치계를 한다.³⁰⁾

이양선의 표도지는 예미포(曳尾浦)이다 비금면에서는 현 ‘이미해변’을 옛날 ‘예미’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종선 3척은 세항포(細項浦)에 표착하였다. 이곳은 지금의 월포마을로 보인다. 월포는 옛 이름이 ‘가는목’으로 ‘세항포’와 지명이 통하는 땅이름이다.

이양선 선원들 체류 장소는 비금도 ‘서면(西面) 울내촌(栗內村)’으로 기록이 나온다. ‘서면’은 방향을 이른 것 같고 ‘울내촌’은 그 당시나 지금 전해지는 땅이름 가운데 직접 연결되는 지명이 확인되지 않아³¹⁾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지금의 내월리 내촌(內村)마을과 외촌(外村)마을 일대로 보인다. ‘내촌’과 ‘외촌’은 1912년 행정지명자료로 나온다. 내촌은 마을 뒤쪽에 병풍처럼 둘러싼 산을 중심으로 산 북쪽은 바다가 있고 남쪽은 농경지를 포함하고 있다. 부근 마을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마을이라 ‘안동네’라 했다 한다. 임진왜란 무렵 수군 호위장으로 왔다가 비금도에 정착한 강릉유씨의 유가(劉家, 1567~1618)의 후손들이 구림리 구기촌에서 세거하다가 유삼소(劉三素, 1634~1696)때 덕산리 한산촌으로, 유시남(劉時南, 1699~1786)이 내월리 내촌으로 유재열(劉載烈, 1826~1888)이 내촌 옆 마을인 월포마을로 분가 정착하였다. 이처럼 내촌은 18세기 중엽에 마을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³²⁾ 마을 곳곳의 토속경관 돌담은 마을의 형성시기에 쌓은 것으로 전한다. 국가등록문화재 등록되었

28) “金德根 文通訓 庚戌七月十六日赴 壬子遞 立碑”(『靈光續修輿地勝覽』, 1871년, 규장각 소장 一叢古915.142-G155y)

29) 『戶口總數』(1789년, 규장각 소장 奎1602) 영광조

30) 『일성록』 철종 2년(1851) 3월 23일(경자).

31) 황금연, 「『戶口總數』의 ‘羅州’ 지명에 대하여-‘島三十三’의 마을 지명을 중심으로-」, 『地名學』32, 2020. 호구 총수 비금도 동리 11개소 가운데 都廳村, 栗田村, 斗目里에 대응하는 후대 지명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32) 김경옥, 「조선후기 나주목 비금도 주민들의 토지운영 실태」, 『도서문화』 제19집, 2002, 59쪽.

다.³³⁾ 외촌에는 마을의 비보 구실을 하는 우실이 있다.

조선후기 동리를 기록한 『호구총수』(1789년)에 비금도의 ‘울전촌(栗田村)’이 표도한 ‘울내촌’과 유사한 표기로 보이긴 하지만, 후대의 기록에서는 이 ‘울전촌’은 확인되지 않는다. 땅이름에서 ‘울(栗)’은 밤나무를 뜻하지만 산의 옛말[뵐]과 연결되는 지명이다. ‘뵐>밭’이었다. ‘전(田)’은 경작지를 뜻하지만 ‘밭[바깽]’과 연결되는 지명이다. 산밖에 있는 마을 = 뵐+밭+촌>밭밭촌>밤밭촌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한자로 쓸 때 밤나무의 ‘밤 울(栗)’자, 밭[밭]은 훈대로 ‘밭 전(田)’으로 하여 ‘울전촌(栗田村)’이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³⁴⁾ 산이 경계가 되고 있는 마을이라는 지명풀이를 할 수 있다. 1912년 기록에서 나오는 ‘외촌’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호구총수』(1789년) ‘울전촌(栗田村)’, 일성록 상 표도한 곳의 지명 ‘울내촌(栗內村)’, 1912년 기록에 나오고 지금도 마을 지명으로 쓰고 있는 ‘내촌(內村)’과 ‘외촌(外村)’이 서로 연관되는 땅이름일 것으로 보인다.

1851년(철종 2) 3월 7일(양력 4월 7일) 신시(申時, 오후 3~5시)에는 목포진만호 조건식(趙健植)이 비금도에 도착하였다. 목포만호는 여러차례 섬사람을 보내 지키고 동정을 살피게 했다. 목포진은 전라우도수군절도사영 예하의 수군만호진이다. 조건식은 1849년(철종 즉위) 12월 26일 목포만호에 제수되었다. 훈련원 정(訓鍊正)을 차출해야 하는데 의망할 사람이 부족하여 외임도 아울러 의망하지는 박제헌(朴齊憲)의 계(啓)에 따라 훈련원 정은 김정출(金正尢)이 제수 되고 전라우수영 소속으로는 이태원(李泰遠) 고금도첨사, 김용(金鏞) 다경포첨사, 조건식 목포만호, 이항선(異恒善) 금갑도만호 등이 제수된다.³⁵⁾

목포진은 지금의 전남 목포시 만호동에 소재하며, 1683년(숙종 9) 개편된 전라도 수군 진관체제에 따르면 전라우도수군절제사영의 위도진관의 관할을 받았다. 위도진관은 위도첨절제사진과 임치진, 목포진, 다경진, 지도진, 법성포진, 검모포진, 고군산진, 군산진을 거느렸다. 목포진에는 만호 1인 외에 군관 6인, 진무(鎭撫) 7인, 사부(射夫) 2인, 사령(使令) 5인의 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호는 인근 지역의 해상 경계 경비 등 병사 업무의 수행 이외에 진영 소재지의 일반 행정까지도 관할하였다.³⁶⁾ 목포 만호가 비금도에 갈 때에는 군관, 진무, 사부, 사령이 1명씩 왔더라고 최소 인원이 5명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851년(철종 2) 3월 9일(양력 4월 10일) 해시(亥時, 오후 9~11시) 이국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검을 뽑아서 둘러싸고 사람을 해치려 했다. 목포만호는 놀라서 방어하려 했고, 그 사이 선원 9명이 배를 타고 서해로 도망하였는데 배는 날듯 빨랐다. 전라감사 이유원은 목포만호를 벌하고 지방관과 수군우후에게는 남은 선원을 잘 지키라도 지시했다.³⁷⁾

33) 김희태, 「전남지방의 돌담」, 『전남의 민속문화』 전라남도·국립민속박물관, 2011.

34) 윤여정, 『한자에 빼앗긴 토박이 땅이름』-대한민국 땅이름 뿌리사전-, 향지사, 1998., 214~215쪽.

35) 『승정원일기』 2496책(탈초본 121책) 철종 즉위년(1849) 12월 26일(기축).

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I 전라우수영편』, 2011., 90~93쪽.

37) 이들은 상해(上海)로 가서 프랑스 영사관으로 들어가 구원을 요청한다.

1851년(철종 2) 3월 11일(양력 4월 12일) 전라우도 수군우후 최홍현(崔洪賢)과 나주목사 겸임 남평현감 이정현(李正鉉)이 비금도에 도착했다. 이양선은 큰 바다의 한 모퉁이 모래언덕에 있었다. 20명을 좌우로 불러 모아 보니 모두 남자였다. 배에 있는 큰 통은 비어 있고 작은 통은 떡조각과 쌀가루 등이 담겨 있었다. 작은 배 두척은 길이가 4파였다. 문정을 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고 글자도 알 수 없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림을 그려 수로보다는 육로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의 지시를 기다리기로 했다.

최홍현은 1850년(철종 1) 12월 26일 전라우수우후(全羅右水虞候)에 제수된다.³⁸⁾ 우후(虞候)는 각 도에 둔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보좌하는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이다. 병마우후가 종삼품, 수군우후가 정사품이었다. 최홍현은 1851년(철종 2) 12월 27일 무겸(武兼)³⁹⁾으로 제수되고 송재열(宋在烈)이 전라우수우후로 온다.

전라우수영의 지휘체계는 전라우수사 아래에 수군첨절제사, 우후, 만호 등으로 구성되며, 그 아래에 관원소장(官員所掌), 장교소장(將校所掌), 제리소장(諸吏所掌), 포교소장(捕校所掌), 관노소장(官奴所掌), 나졸소장(羅卒所掌) 등이 파견되었다. 전라우수영은 군사적 기능으로는 해방(海防)이 중요시 되었고, 이를 위해서 봉수대 관리와 수군 훈련 그리고 선박 건조 등을 수행하였다. 또 행정적 기능으로 표류민에 관한 보고, 조운선 호송, 금송(禁松)과 선재목 관리 등을 수행하였다.⁴⁰⁾

이정현(1803~1866)은 1850년(철종 1) 5월~1852년(철종 3) 12월 사이 남평현감을 지낸다. 나주목사 김재경이 파직되자 나주목사를 겸임하게 되어 나주목이 관할하던 비금도의 이양선 문정관이 된 것이다.⁴¹⁾

1851년(철종 2) 4월 1일(양력 5월 1일) 비변사에서 임금에게 전라감사 이유원(李裕元)의 장계에 따라 나주 비금도에 표류해 온 이국인에게 배를 주어 돌려 보낼 것을 청하자 윤허하였다. 『비변사등록』과 『일성록』에 같은 내용이 있다. 전후 관계 이해를 위하여 전문을 인용한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라감사 이유원(李裕元)⁴²⁾의 장계(狀啓)⁴³⁾를 보니, 문정관(問情官)들이 보고한 것을 날날이 들고 이르기를, ‘나주의 비금도에 표류해 온 이국인 가운데 9명은 이미 먼

38) 『승정원일기』 2512책 (탈초본 122책) 철종 1년(1850) 12월 26일(계미). 이 기사에 최홍현은 훈련 주부(訓練主簿)와 훈련 판관(訓練判官)에 단부(單付)되는 기록이 함께 있다. 훈련 주부는 훈련원에 딸린 종육품, 훈련판관은 훈련원에 딸린 종오품이다.

39) 무겸은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속한 무관으로 선전관을 겸한 사람으로 무신 겸 선전관의 약칭이다. 형명(形名: 軍號의 일종)·전령·부신(符信)의 출납 등을 맡았다.

4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Ⅰ 전라우수영편』, 2011., 63쪽.

41) 이정현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나주목사 이정현과 관련 문화유산 편 참조.

42) 이유원(李裕元, 1814~1888) : 1850년(철종 1년) 12월~1851년(철종 2년) 12월 전라도관찰사 재임. 본관은 경주, 자는 경춘(景春), 호는 굴산(楡山)·묵농(默農)이다. 1842년(헌종 7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예문관검열·함경감사·대사헌·형조판서·영의정 등을 지냈다. 학문에 뛰어나 『임하필기』·『가오고략(嘉梧藁略)』·『굴산문고』를 남겼으며, 예서에 능하였다.

43) 장계(狀啓) :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管下)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저 돌아갔고, 20명을 문정하였는바 언어와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큰 배에 돛을 두 개 단 형용을 그리고 손으로 그 배에 20인을 다 태우고 떠나는 시늉을 하기에 그가 그린 그림을 지우면서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육로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렸더니 저들이 서로 돌아보고 기쁜 낯빛을 띤 것으로 보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육로로 돌아가는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손이나 그림으로 어렵듯이 형용만 그린 것에 불과하고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니, 어느 표류자들과 현저히 다릅니다. 육로로 보내는 일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삼가 묘당(廟堂)⁴⁴⁾에서 품처(稟處)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언어와 문자로 비록 뜻을 통하지는 못하였더라도 그림으로 그리고 손으로 가르쳤으니 형용을 잘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저들이 손으로 배 모양을 그리고 입으로 바람 부는 형용을 한 것은 그들이 배를 빌려 수로(水路)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가진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문정관이 배 그림을 지우고 육로로 돌아가라는 뜻을 보인 것은 다만 경솔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표류인을 돌려보내는 일이 비록 매우 급하기는 하지만 육로로 가는 것은 지장이 있을 듯하니 결코 쉽사리 논의할 수 없습니다. 나주 부근의 조창(漕倉)⁴⁵⁾에 정박하고 있는 조선(漕船)⁴⁶⁾ 중에 돛을 두 개 달고 튼튼한 것으로 한두 척(隻)⁴⁷⁾을 즉시 저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 저들 스스로 자세히 살펴보게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곧 채비해 주어, 순풍을 기다려 떠나보내라고 도신(道臣)⁴⁸⁾에게 관문(關文)⁴⁹⁾으로 신칙해서 성화같이 거행하여 지체하는 일이 없게 하고 떠나기 전의 공궤(供饋)⁵⁰⁾와 간호(看護)와 잡인(雜人)을 금지하는 일 또한 각별히 엄히 신칙해서 극히 근실(勤實)하게 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해서 대접을 잘못된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택하다고 답하였다.⁵¹⁾

2) 문정관 나주목사 이정현과 관련 유산

1851년 4월 비금도에서 이양선을 문정한 지방관 나주목사는 이정현이다. 그런데 이정현은 나주읍지류의 선생안에는 나주목사로 재임한 기록이 보이질 않는다. 『일성록』에 “지방관 나주 겸임 남평현감(地方官 羅州 兼任 南平縣監)”으로 기록이 나온다. 남평현감안데 나주목사를 겸임한 것이다. 이정현은 1850년(철종 1, 경술) 5월 10일 남평현감에 제수되어 5월 22일 희정당(熙政堂)에서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부임하였다.⁵²⁾ 1852년(철종 3, 임자) 12월 24일 고양군수로 옮긴다.⁵³⁾

44) 묘당(廟堂) : 조선 시대에, 가장 높은 행정 관청인 의정부(議政府)를 달리 이르던 말.

45) 조창(漕倉) : 세곡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강가나 바닷가에 지어 놓은 곳집. 조선 시대에는 경창(京倉), 가흥창(可興倉) 등 전국에 열 곳이 있었다. 전라도에는 나주 영산창(榮山倉)과 함열 덕성창(咸悅 德成倉)이 있었다.

46) 조선(漕船) : 조운하는 데 쓰던 배. 조운은 현물로 받아들인 각 지방의 조세를 서울까지 배로 운반하던 일. 또는 그런 제도. 내륙의 수로를 이용하는 수운 또는 참운(站運)과 바다를 이용하는 해운이 있다.

47) 척(隻) : 배[船]의 수를 세는데 쓰는 말. 고(篙), 배(杯), 소(艘), 정(艇)으로도 쓴다.

48) 도신(道臣) : 조선 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 그 지방의 경찰권·사법권·징세권 따위의 행정상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종이품 벼슬로, 도관찰출척사를 세조 12년(1466)에 고친 것이다.

49) 관문(關文) : 동등한 관부 상호 간 또는 상급 관부에서 하급 관부로 보내던 공문서.

50) 공궤(供饋) :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으로 ‘극진히 섬기며 보살핌’이란 의미이다.

51) 『비변사등록』 238책, 철종 2년(1851) 4월 1일 ; 『일성록』 철종 2년(1851) 4월 1일(정사).

52) 『승정원일기』 철종 1년(1850) 5월 10일(신축)·5월 22일(계축).

『남평군읍지』에 “이정현 : 경술 5월에 종친부 전적에서 도임하여 임자 12월에 고양군수로 이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다.⁵⁴⁾

나주목사 김재경(金在敬, 1791~1864)이 파직되자 남평현감 이정현이 겸관으로 나주목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김재경은 1849년(현종 15) 5월 1일 황해도 서흥부사에서 나주목사에 제수된다. 5월 18일에도 해주 임소에 있어 농사일이 한창 바쁘니 하직하고 며칠 안으로 내려가도록 재촉받기도 한다. 7월 9일에도 7월 12일까지는 내려간다 했다는 기록⁵⁵⁾이 있어 나주 목사 부임은 두 달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851년(철종 2) 4월 10일 전라도 암행어사 조운경(趙雲卿)이 나주목사 김재경 등에게 죄줄 것을 서계하여 임금이 불러 보았다.⁵⁶⁾ 4월 12일에는 조운경의 서계에 따라 진산군수(尹會善)과 함께 먼저 파출(罷黜)하고 나처(拿處)하도록 한다. 김재경 목사는 가작미조(加作米租)⁵⁷⁾가 2,144섬, 분방봉결(分房捧結)⁵⁸⁾이 3,000량이 될 정도로 많아 파출되기에 이른 것이다. 4월 14일에는 연산지(連山地)로 내려갔는데 나수(拿囚)의 명이 내리고 4월 20일에는 김재경이 원정(原情)을 내기도 하지만 4월 24일 가작과 분방채는 용서가 어려우니 장(杖) 칠십은 수속(收贖)하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하는 등의 처벌을 받는다.⁵⁹⁾

이처럼 비금도를 관할하던 나주목사 김재경이 파직된 상태에서 이양선이 표류되자 인근의 남평현감 이정현이 겸관으로 나주목사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⁶⁰⁾ 후임 조연명은 1851년(철종 2, 신해) 4월 13일 제수⁶¹⁾되어 5월 10일에 부임하였다.⁶²⁾

이정현(1803⁶³⁾~1866)의 본관은 용인(龍仁)⁶⁴⁾, 자는 수여(修汝), 호는 소석(韶石)이다. 부친은

53) 『승정원일기』 철종 3년(1852) 12월 24일(기해).

54) “李正鉉 庚戌五月 以宗親府典籍到任 壬子十二月 移拜高陽郡守” 『南平郡邑誌』(규장각 소장, 奎10776) 仕宦.

55) 『승정원일기』 현종 15년(1849) 5월 1일(정유)·현종 15년 5월 18일(갑인)·철종 1년 7월 9일(기해).

56) 『철종실록』 3권, 철종 2년(1851년) 4월 10일(병인).

57) 가작미조(加作米租) : 가작은 가작 전환(加作錢還)의 줄임말로 환곡을 출납할 때 미곡을 돈으로 환산하여 그 이자를 규정보다 더 쳐서 받아들이던 일을 말한다. 이무(移貿)와 함께 조선시대 환곡의 대표적 폐단이다. 이무는 지방 관원들이 자기 고을 환곡의 시세가 오르면 내다 팔고, 값이 싼 다른 고을의 곡식을 사서 채워 넣어 시세차익을 취하던 일을 가리킨다.

58) 분방봉결(分房捧結) : 분방(分房)은 분방채(分房債)를 말하며 각종 명목으로 여러 벼슬아치들에게 일을 나누어 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부담을 지운 것을 말한다.

59) 『나주목여지승람』(奎17422)에는 “牧使 金在敬 己酉六月十三日到任 而辛亥四月十三日入繡啓罷”라 하여 1849년 6월 13일 부임, 1851년 4월 13일 파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1851년 3월 11일(양력 4월 12일) 남평현감 겸임 나주목사로 비금도에 간 기록이 나오는데, 김재경 목사는 4월 10일부터 기록이 나와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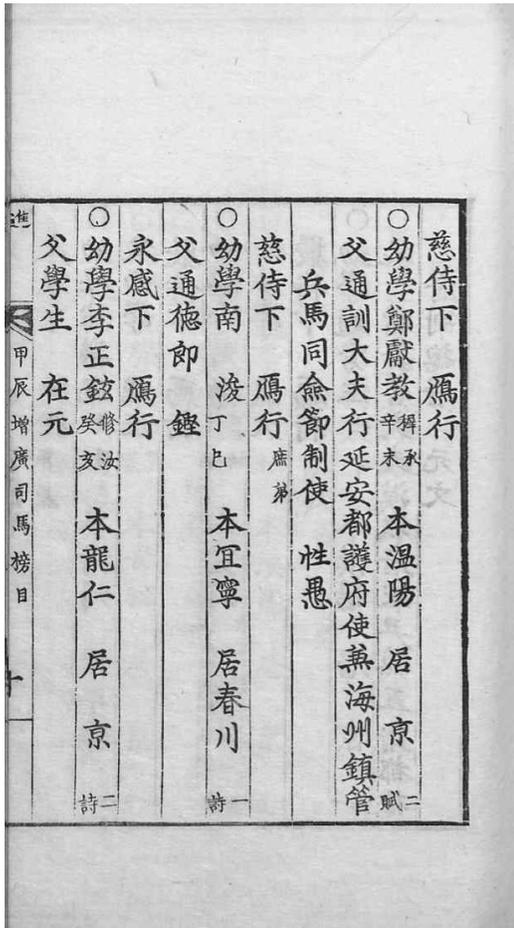
60) 겸관에 대해서는 『大典會通』의 “【중]경기(京畿)에 가까운 고을의 영장, 성장, 독진을 겸임한 수령이 잡혀가서 문초를 받으면 겸관을 차출하고 후임을 차출하지 않는다.】(【增] 內地兼營將·城將·獨鎮守令拿問, 則差兼官勿出代. 【補] 外地守令同, 邊地則否.】”(『大典會通』 吏典 外官職 [面看交代]) 등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61) 『승정원일기』 철종 2년(1851) 4월 13일(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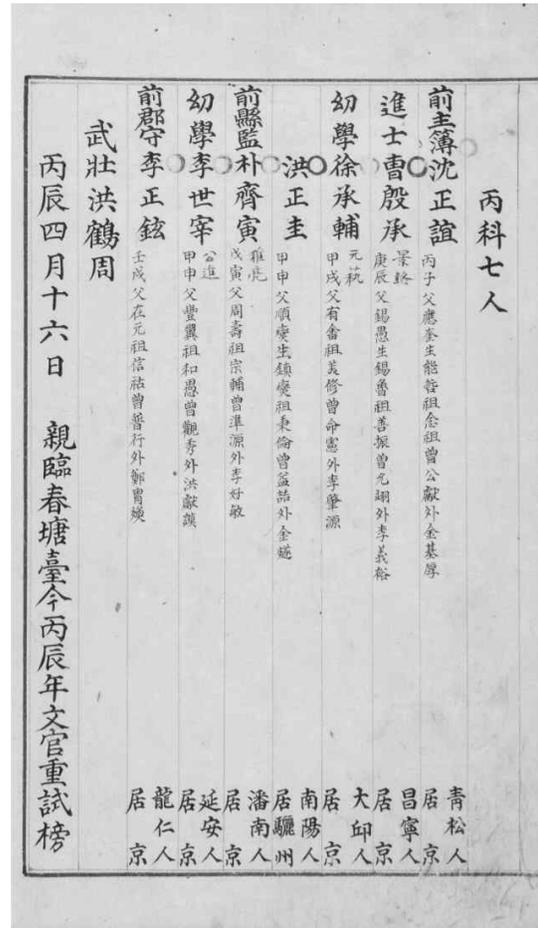
62) “牧使趙然明 辛亥五月初十日到任 癸丑正月十五日移拜忠州牧使”(『나주목여지승람』, 규장각 소장 奎17422)

63) 이정현의 출생연도는 『국조방목(國朝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 11655])에는 임술년(1803년), 『용인이 씨대동보』에는 계해(1802) 윤 2월 23일로 기록하고 있다.

이재원(李在元), 조부는 이신호(李信祐), 증조부는 이보행(李普行), 외조부는 정주환(鄭胄煥, 본관 迎日) 처부(妻父)는 홍주하(洪柱夏)이다. 조부 이신호와 증조부 이보행도 문과에 급제하였다. 1844년(헌종 10) 진사시(증광시 진사 3등 22위)에 합격하였다. 방목상에서 거주지는 한성[京]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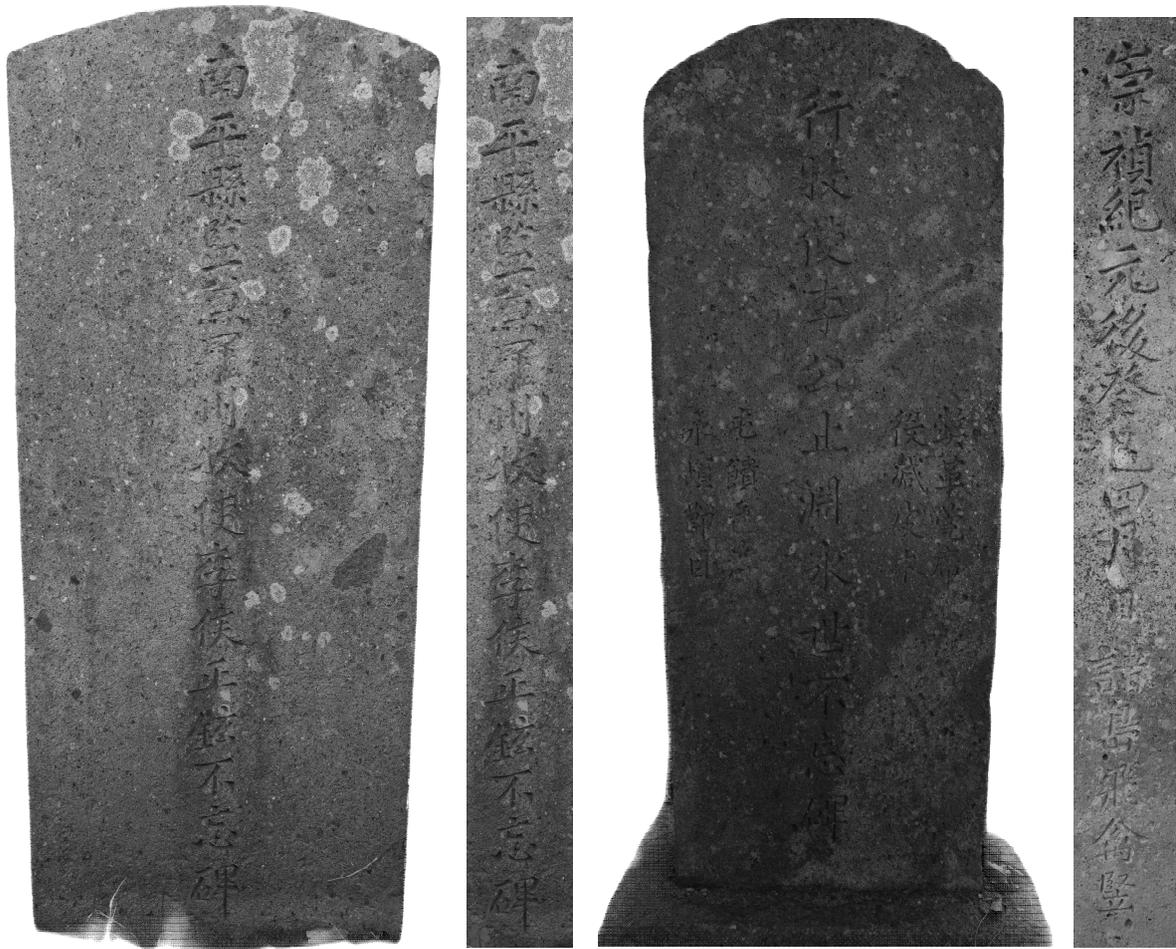
이정현 사마방목(甲辰) 증광시 [진사] 3등 22위



이정현 문과방목(丙辰)-별시(別試) 병과(丙科) 7위

이정현은 도사를 거쳐 장원별제, 장악원 장악, 경모궁령, 종친부 전부를 역임하고 외직으로 남평 현감, 고양군수를 거쳤다. 1856년(철종 7)에 문과(별시 병과 7위)에 급제하였다. 의주부윤(義州府尹, 1863.11), 승정원승지, 이조참의, 성균관대사성, 사복시정, 평안도 암행어사, 수찬, 응교, 집의, 예조참의, 좌부승지, 함평 익산 안핵사, 부총관, 한성우윤 등을 지냈다. 묘소는 음성군 소이면 대장리에 있다. 배위는 남양홍씨이다.⁶⁵⁾ 남평현감을 지내면서 나주목사를 겸임하여 프랑스 이양선 표도에 관한 일을 비금도 현지에서 조치하였던 것이다.

64) 용인이씨는 조선시대 86명의 문과급제자를 배출하고 조선후기 유력 경화사족(京華士族)으로 명성을 떨쳤다. (경기도박물관, 『천년이 뿌리 용인이씨』, 2013.)
 65)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과 『용인이씨대동보』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인물정보시스템 관인정보에는 승정원승지, 이조참의, 성균관대사성, 홍문관, 동벽(東壁), 춘천부사, 의주부윤 기록이 나온다.



남평현감 겸 나주목사 이정현 불망비 2020.05.13.

비금도 사람이 세운 나주목사 이지연 불망비

나주 영산동행정복지센터(예향로 3872, 영산동 18) 앞에 이정현의 불망비가 있다. 건립 연대에 대한 기록을 새기지 않았다. 앞면에 “남평현감 겸 나주목사 이후정현 불망비(南平縣監兼羅州牧使李侯正鉉不忘碑)라 내려쓰기 음각으로 새겼다.⁶⁶⁾ 현 위치로 옮기기 전에는 인근에 있는 영강사(나주시 영산동 39번지) 곁에 있었다.⁶⁷⁾ 영강사는 경주이씨 명현선조 7위를 향사하는 사우로 조선 시대에 건립되었는데 훼손 된 뒤 1960년에 복설하였다. 이 복설 시기에 인근의 공적비를 모아 세

66) 높이 106cm, 너비 48~42cm, 두께 16cm 크기이다. 한편, 이정현 불망비와 함께 있는 행목사 이지연 불망비(行牧使李公正淵永世不忘碑)는 후면에 ‘崇禎紀元後癸巳四月日 諸島飛禽豎’리 연기와 건립 주체가 새겨 있는데, 1833년(순조 23) 4월에 비금도 주민들이 세운 것이다. 이지연(李止淵, 1777~1841)은 1830. 10.~1831. 1. 사이 나주목사를 지냈다. “槃革莞席 役減皮木 屯饋色浮 永頌節目(완석의 폐단을 혁파하고 피목의 부역을 덜어주었네 군사를 공개하니 색이 뜨고 영원히 탈하라 절목을 세웠네)”의 찬문을 새겼다. 비의 높이 135cm, 너비 51~44cm, 두께 21cm이다. 나주문화원, 『나주의 금석문1』, 2019.

67) 나주시지편찬위원회, 『나주시지』 제1권-자연·역사·관광-, 2006., 835쪽. 이곳에는 行牧使李公正淵永世不忘碑(1833년), 營將朴侯恒來淸德善政碑(1888년), 營將兼負商班首金公熙淳永世不忘碑(1891년), 明禮宮稅監司果金潤昌不忘碑, 通政大夫行軍部參書官兼三面查檢官金公永世不忘碑, 牧使李公晦淵善政碑, 牧使金侯箕絢永世不忘碑, 御史趙侯龜夏不忘碑, 南平縣監兼羅州牧使李侯正鉉不忘碑 9기가 있었다.

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⁶⁸⁾, 이 비를 처음 세운 장소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현감은 종육품, 목사는 정삼품의 품계에 해당한다.⁶⁹⁾ ‘겸(兼)’은 겸임(兼任)을 뜻하는데 수령(守令)이 파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고 후임 수령이 오는 사이에 생기는 행정 공백기에 이웃 고을의 수령이 해당 고을의 수령을 임시로 맡아보았는데, 이 경우 겸임관(兼任官)이라 칭하였다. 남평 현감 이정현은 나주목사가 파직되자 후임목사가 도임하기까지 나주목사를 겸임하였고, 이 겸임 시기에 비금도에서 이양선[프랑스 난파선]의 선원에 대한 일을 처리한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조선후기 이양선의 표도와 나주목 비금도 표류 이국인을 주제로 해서 이양선의 표도와 ‘신안’, 나주목 비금도와 신안군 비금도, 대법란서국(프랑스) 이양선의 비금도 표도, 문정관 나주목사 이정현과 관련 유산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자료 정리 수준에 머물고 말았지만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의 자리가 계속 이어져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고를 처음 계획할 때에는 이양선의 이국인 20인이 한달여 비금도에 체류하면서 음식은 어떻게 마련했을까. 그들이 신고 온 식량은 무엇무엇이고 도구나 기구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배에서만 생활하고 물으로는 나오지 않았을까. 주민과는 전혀 교류가 없었을까. 그들이 비금도에 남긴 이야기는 있을까. 비금도의 경관과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이 느낀 점은 무엇이었을까. 그 20명 가운데에는 일기나 기록을 남긴 이는 없었을까. 그 후손들은 선조의 조선 표도, 비금도 체류를 들었을까. 혹 방문하려는 사람도 있을까. 그들의 한달간 비금도 체류가 비금도 사람들, 나아가 우리 지역에 준 영향은 있을까.

조금 관점을 달리하여, 보도에 나오는 옹기 술병은 어디에서 제작한 것일까. 그 병에 담긴 술은 어디에서 만들었고 맛은 어땠을까. 나주에서 가져갔을까 비금도산일까. 기록상(1991년경)으로 비금도에도 주점이 몇군데 나오는데 그 60여년전인 1851년에도 주점과 같은 기능이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 이국인 선원 외에도 나주목사, 전라우수영 수군우후, 목포만호 등이 문정관으로 왔는데 그들은 음식, 숙박, 생활은 어떻게 하였을까. 나주목사는 어떤 길을 통해 이동했을까. 육로로 가다가 어디에서부터 수로로 갔을까. 혹여 영산강 수로로는 가지 않았을까. 나주 조창의 조운선을 보낸다는데, 그 조운선은 어디까지 향해 했을까. 해남의 전라우수영에서는 어떻게 이동하고 몇 명이 왔고 며칠간 비금도에 있었을까. 목포만호는 몇 명과 함께였을까. 예미포, 세향포, 우포, 월내촌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 무언가 흔적이라도 있을까.

이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서 떠 올리며 몇 가지라도 정리할 수 있다면, 찾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

68) 윤여정 나주문화원장 제보.

69) 『大典通編』 吏典 外官職 전라도(全羅道) 직제를 보면, 관찰사(종2품) 1원(員), 부윤 1원(전주, 관찰사 겸임), 목사(정3품) 4원(나주, 제주, 광주, 능주), 도호부사(종3품) 7원, 군수 11원, 판관(종5품) 2원(전주, 제주), 현령(종5품) 5원, 참방(종6품) 6원, 현감(종6품) 28원, 교수(종6품)·훈도(종9품) 49원, 역학(譯學)(종9품) 6원, 심약(審藥)(종9품) 3원, 검률(檢律)(종9품) 2원, 역승(驛丞)(종9품) 3원이다.

여기면서 조사와 정리를 시도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루지 못한채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말았다. 공부가 부족한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이 글을 계기로 하나씩 풀어 가는 힘과 지혜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南平郡邑誌』(奎10776)
『大典通編』(1784년, 奎202)
『羅州牧輿地勝覽』(奎17422)
『萬機要覽』(奎1151)
『備邊司謄錄』(奎15044)/『국역비변사등록』
『新增東國輿地勝覽』(奎貴1932)
『靈光續修輿地勝覽』(1871년, 규장각 一叢古915.142-G155y)
『日省錄』(奎12815)
『戶口總數』(1789년, 奎1602)
- 경기도박물관, 『천년이 뿌리 용인이씨』, 201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I-전라우수영편-』, 2011.
김정호, 『지방연혁연구』-전남을 중심으로-, 광주일보출판국, 1988.
나주문화원, 『나주의 금석문1』, 2019.
나주시지편찬위원회, 『나주시지』 제1권-자연·역사·관광-, 2006,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신안군, 『비변사등록 신안군관계기사 자료집』, 1998.
미래문화교육연구소·경문학사, 『비금도 역사 현장 자료집』, 2023. 7. 22.(유인물)
박천홍,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서양과 조선의 만남-』, 현실문화, 2008.
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표해록』, 역사공간, 2018.
용인이씨대중회, 『용인이씨대동보』, 2008.
越智唯七編,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韓國地理風俗誌叢書189·190, 경인문화사, 1989).
윤여정엮음, 『대한민국 행정지명1-전남·광주편』, 향지사, 2008.
윤여정, 『한자에 빠앗긴 토박이 땅이름』, 향지사, 1998.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조선총독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 고석규, 『『비변사등록』과 신안군의 역사 연구』, 『비변사등록 신안군관계기사 자료집』,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신안군, 1998.
고석규, 「조선시기 표류경험의 기록과 활용」, 『도서문화』, 31,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2008.
김강일, 「전근대 한국의 해난구조와 표류민 구조 시스템」, 『동북아역사논총』 28, 동북아역사재단, 2010.

- 김경옥, 「조선후기 나주목 비금도 주민들의 토지운영 실태」, 『도서문화』 제19집,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2002.
- 김경옥, 「19~20세기 비금도 간척지의 조성과정과 이용 실태」, 『한국학연구』 4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김경옥, 「근세 동아시아 해역의 표류연구 동향과 과제」, 『명청사연구』 4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 김경옥, 「20세기 비금도 가산리의 공간변화와 간척지의 이용실태」, 『역사와 경계』 102, 부산경남사학회, 2017.
- 김경옥, 「18-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 표도민들의 추이 : 비변사등록 문정별단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44, 조선시대사학회, 2008.
- 김경옥, 「조선의 대청관계와 서해해역에 표류한 중국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49, 한일관계사학회, 2014.
- 김희태, 「전남지방의 돌담」, 『전남의 민속문화』 전라남도·국립민속박물관, 2011.
- 신안군 세계유산과, 「비금도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 표착지 조사」, 2023. 7. 13. (유인물).
- 심민정, 「『朝鮮漂流日記』(1819)에 나타난 표류왜인 호송과 접대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70, 한일관계사학회, 2020.
- 정세훈, 「18~19세기 목포진의 역할과 서남해 수군 네트워크」, 『해양문화재』 17,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 최성환, 「비금도 천일염전 개발과정과 사회적 확산」, 『도서문화』 40,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2012.
- 황금연, 「『戶口總數』의 ‘羅州’ 지명에 대하여-‘島三十三’의 마을 지명을 중심으로-」, 『지명학』 32, 2020.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s://kyu.snu.ac.kr>)

신안군청(<https://www.shinan.go.kr>)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한국 - 프랑스 외교사 재조명 국제포럼〉

1851 나주, 한국-프랑스 첫 만남
Corée-France 1^{ère} Rencontre



제 2 부

한·불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사 재조명을 위한 학술 포럼



1851년 한불 외교사 재발견에 따른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정 순 남

(전 전라남도 경제부지사, 동신대학교 교수)

1. 나주목사 이정현과 상하이 프랑스영사 몽티니의 만남

1851. 5월 신안군 비금도에 도착한 나주목사 이정현과 중국 상하이 주재 프랑스 영사 샤를르 드 몽티니(Montigny)가 나주 막걸리와 프랑스 와인을 마시며 최초로 조우. 나주가 처음으로 유럽 최강국 프랑스와의 교류를 여는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진 것임(‘조불 우호 통상 조약’(1886년)을 통해 공식 관계를 맺기 35년 전). 포경선 나발호 난파선 문제가 해결된 후 몽티니 영사는 상하이로 떠나기 전 5월 2일 나주목사 이정현을 만나 저녁 자리를 갖고 프랑스산 샴페인과 갈색옹기에 담긴 나주 막걸리 교류.

2. '23년 5월 “역사속의 한불, 그 첫 만찬” 행사가 열림

금년 5월 2일 프랑스 국립도자기박물관에서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역사 속의 한국과 프랑스, 그 첫 만찬’ 행사장에 172년 전, 1851년 나주목사와 프랑스 샤를리 몽티니 프랑스 영사가 처음 만나 막걸리와 샴페인을 나누는 만찬을 재연하는 행사가 재현. 170여 년 전 만찬 자리에 나왔던 갈색 주병(酒瓶)이 이곳에 보관중. 몽티니 영사가 관아에서 내놓은 술병 중 하나를 만남의 증거로 가져 왔고, 당시의 일을 상세히 적은 외교 문서와 함께 프랑스 정부에 제출. 이날 행사명은 ‘막걸리와 샴페인의 만남’이라고 명명. 몽티니 영사가 남긴 기록엔 “조선 술은 맑고 독했다”고 되어 있어 소주가 아니냐는 해석이 있지만, 최근 유럽의 ‘K푸드’ 유행을 주도하는 한국 술이 막걸리라는 점을 감안. 박물관의 도자기 제작 시설 한편에서 당시의 일을 재연한 작은 공연과 함께 양국을 대표하는 샴페인 2종과 막걸리 3종, 200여명 참석. 샤를르 고메르 프랑스 샴페인협회 사무총장, 정규석 한국 막걸리협회 고문, 비금도 사건을 연구해 온 피에르 엠마누엘 후 파리 7대학 교수 등이 참석.

3., 프랑스 문화에 대한 몇 가지 개인적 경험

몇 번에 걸쳐 프랑스를 여행할 기회. 프랑스는 문화, 관광, 패션, 건축, 와인, 첨단 ICT산업, 원전 등으로 알려진 세계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 무엇보다도 프랑스는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를 끊임 없이 추구. 프랑스는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높은 출산률을 유지하는 나라. 프랑스 정신을 압축하는 사건은 유럽의 왕정체제를 종식한 프랑스혁명이었으며, 오늘날의 시민민주주의 탄생의 결정적 배경.

4. 한·불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만남, 인연, 역사적 사건 등은 창조적 상상력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음. 곡성의 심청이 시집갔다는 중국 절강성 저우산시와의 인연, 정약용 형제가 헤어졌다는 울정정 복원, 고려 광종 나주몽진에 관한 논의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

(막걸리와 샴페인교류) 이미아/한불문화예술교류협회 협회장 : 각 나라를 대표하는 술을 가지고 시 작이 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음

(지속적인 우호관계 중요) 크리스토프 아바드/프랑스국방부 파리최고군지휘관 : 양국의 전통과 공동의 문화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우호적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필요

(민간차원 교류) 김현숙/파리8대학 예술학부 교수 : 공공 차원에서가 아니라 민간 차원교류. 막걸리 병 박물관에서 보존은 굉장히 감동적 사안

(주요행사 활용) 최재철/주프랑스 한국 대사 : '24년 파리 올림픽, '26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11월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이벤트 활용 우호관계 지속 필요성

(이화에 월백하고 행사 공동개최) 프랑스 대사초청 나주 막걸리와 프랑스 와인을 시음 교류, 와인제조 기술과 막걸리 제조기술 교류

(나주소재 프랑수유관 자원발굴) 유학생, 교수, 연구자, 유튜버, 문화예술인, 다문화가정 및 수도권 전문가 발굴 및 나주-프랑스 연관소재 발굴 및 교류

(한국 프랑수마을 교류추진) 서울 서래마을과 민간차원 협의체 교류, 체험행사

(공공기관 프랑수관련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 농생명, 문화콘텐츠 자원발굴 등

(체류형 프랑수 마을추진) 나주목사 숙소, 농가빈집 등을 활용 몽티니마을 조성하고 양국 문화 관광 체험 프로그램 추진, 영산강 그랑폰도-트루 드 프랑수 교류 등

(나주/프랑수 비교우위 정책공유) 나주와 프랑수 유사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자원을 발굴하고 교류. 특히, 다문화가정 정책, 농축산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활용 저출산, SRF, 축산악취 문제 등 해결

한불 관계 증진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역할 (role)

김 영 미
(동신대학교 교수)

1. 당위성: 세계는 지역국가(the region states) 중심 글로벌 경제 시대 진입

- 이른바 Mega-Region 시대 돌입, 기존의 ‘국가 vs 국가’ 교류에서 ‘지역국가 vs 지역국가’로 재편 중
-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지역성(local)을 특화한 글로벌 경쟁력을 신 성장동력으로 삼고 지역국가가 이제 세계 경제를 조직화하는 새로운 경제적 단위로 부상

예 대한민국 전라남도(나주-신안) vs 프랑스 미디피레네 레지옹(툴루즈 도시)

2. 방향성: 지역간 연계협력으로 대응해야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지역이 국제관문(gate way)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연계협력이 필수
- 필수자원 및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여건 확보

예 나주와 신안, 그리고 전남이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성과 창출 및 지속가능성 확보, 중앙정부 및 정치권 연계협력도 고려 요인

3. 구체성: 각국 정책 수요조사를 통한 교류협력 사업 발굴

- 제조업 또는 기간산업 중심 무역 추진해야 실질적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예 기아 및 현대 자동차 수출국 1위 프랑스, 전기차 수출 확대 및 미래차전진기지 조성

- 글로벌 최대 어젠다 ‘기후위기’ 극복 공동 기술 개발로 에너지 자립도시 동시 건설

예 나주혁신도시 RE100, 툴루즈 RE100

– 문화예술관광으로 인적 교류 활성화

예 알리앙스 프랑세스와 같은 문화원을 나주에 건립, 동시에 한국지역문화원을 툴루즈 등 도시 설립해서 언어, 예술, 대중문화 등 실질적 문화교류 창구 확보 /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 사업’ 공모 추진(문체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4. 차별화: 미래먹거리 사업 추진

– (가칭)‘미쉐린과 K-Food’의 만남

예 파리-나주-장성(르 꼬르동 블루 요리학교의 사찰음식학과 연계 교육사업 및 융합사업 추진)

5. 지향점 및 지양점

– 목표 달성가능한 사업 추진(예: 문화교류, 관광객 및 방문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지속성 확보 어려운 사업 신중 검토(마을 조성 사업)

– 관 주도 일회성 국제행사 지양

한국과 프랑스의 전시 교류

이 지 호
(전남도립미술관장)

한국과 프랑스의 전시 교류

2023.08.21

전남도립미술관장 이지호

순서

1. 들어가며 : 프랑스/한국
2. 프랑스 국공립미술관과 교류
 - MUSEE CERNUSCHI
 - CENTRE POMPIDOU
3. JEONNAM MUSEUM OF ART
 - Laurent Grasso

1. 들어가며 : 프랑스/한국

PARIS :

프랑스 Universite Paris 1, Pantheon Sorbonne
조형예술학(미학) , 석사/준박사/박사(1997)
박사논문 : <L'OBJET BANAL EN TANT QU'OEUVRE
D'ART : Marcel Duchamp et Nam June Paik >

COREE :

연세대학교디자인정보시스템 대학원겸임교수(2002-2004)
대전시립미술관장 (2004-2009)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2009-2012)
대전시립이음노미술관장 (2012-2019)

2010 : FRANCE CHEVALIER DE LA LÉGION D'HONNEUR PAR LA FRANCE

3

2. 프랑스 국공립미술관과 교류

전남도립미술관 : 2021 개관전 <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다, Laurent Grasso >

2022-23 <George Rouault >展:Pompidou Center/Fondation George Rouault : 200점

POMPIDOU CENTER : 2017 <Donation Lee-Ungno >展

MUSEE CERNUSCHI : 2017-2018 <Lee Ungno, L'homme des foules >展

MUSEE CERNUSCHI : 2015~2016 <SEOUL-PARIS-SEOUL >展 (한불상호교류의 해 기념)

이음노미술관 : 2013 이음노미술관-NUSEE CERNUSCHI(파리시립아시아미술관) MOU 체결

이음노미술관 : 2016 <이음노와 유럽의 서체 추상 > 展

이음노미술관 : 2018 <이음노, 낯선 귀향 > 展 Mael Bellec 세루뉴시미술관 학예관 기획

국립현대미술관 : 2011 <FRENCH ART TODAY >展, INSTITUT FRANCAIS, Jean-Marc NIME시립미술관장 공동기획

대전시립미술관 : 2005 <디지털 파라다이스 >展 개최, 미, 영, 프랑스, 일본 등

대전시립미술관 : 2006 <루오-영호의 자유를 지킨 화가 > 展

대전시립미술관 : 2008 <세브르 도자전 >프랑스국립세브르도자기박물관 공동주최

4

2. 프랑스 국공립미술관과 교류



Centre Pompidou 이응노 전 2017.9.20.~2017.11.27 개최



2017, <Lee Ungno, l'homme des foules>

MUSEE CERNUSCHI

2013 MOU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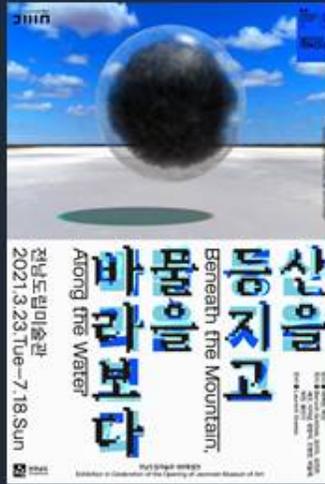









**3. JEONNAM MUSEUM OF ART,
Laurent Grasso, 1972- , 미래가 된 역사**
(A history that became the future)



비디오, 설치, 페인팅, 아카이브형 사진 작업

과학, 불안과 공포, 현대적 미신과 신화 등에 대해 작업

빛, 소리, 전기, 자기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은 요소를 시각화

과거와 현실을 통합하고, 다양한 국가의 역사를 연구

진실과 속임수, 모순과 역설, 현실의 이면 등을 드러냄

예술의 역할은 일상 속에 숨겨진 의미와 생각을 드러내는 과정

시각적인 충격+시사적인 성향

1. 전시 개요

기간 : 2021. 3. 23.(화) ~ 8. 8.(일)

장소 : 전남도립미술관 전시실 6~9.

참여작가 : 로랑 그라스

전시작품 : 회화, 영상, 설치 등 34점 (신작17/구작17)

2. 전시 구성

Gallery 9 : 프리뷰

Gallery 6 : 과거를 연구하다
(Studies into the Past)

Gallery 7 : 오토 (Otto)

Gallery 8 : 태양풍 & 미래식물표본실
(Solar Wind & Future Hebarium)

3. 전시 내용

통합

시공간을 넘나드는 영상, 15~17세기 화법을 면밀히 학습하여 재현한 회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 : → 전통과 현대의 작품을 아우르는 전남도립미술관의 정체성과 맞닿은 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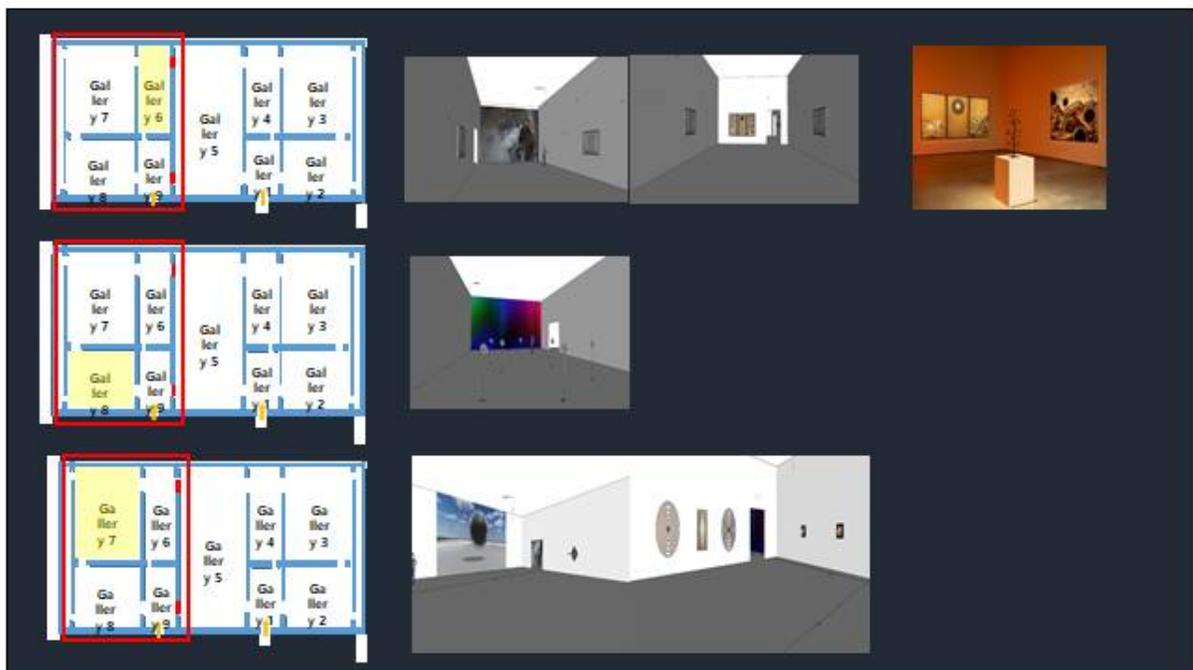
시사성

'상상 속 재해' 를 표현 →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재해와 전염병, 그리고 변화된 일상인 '뉴 노멀' 에 적응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닿아 있음

다양한 사회·과학적 현상을 연구하여 작품에 반영함 → 동시대 ('지금 여기') 미술 전시를 지향하는 미술관

질문

작가는 논리와 이성 뒤에 비가시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음. 역설적인 논리와 시적인 메시지로 점철된 작업 : →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공간'으로서의 미술관



Gallery 6. 과거를 연구하다 (Studies into the Past)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역사와 시간을 녹여낸 현실의 조각에 가깝다”



<한 사람>윤우서
(1668-1715)
국립중앙박물관



Studies into the Past 2021, Oil on canvas



<경선>정선(鄭善)
1676-1759, 1734
년 종이에 수묵단청,
130.6×94.1cm, 국보,
호림미술관 소장

과거를 연구하다

2021. 캔버스에 오일, 목재 패널 액자, 200 × 400 × 7.5 cm

이 세 폭 그림은 조선시대 화가인 윤우서와 정선의 화풍을 따른 것으로 역사적인 그림과 아주 유사한 작품들을 재현한 작품들로 구성된 대규모 개념미술 프로젝트인 <과거에 대한 고찰 Studies into the Past> 연작의 일부이다. 이 작품은 방문 위에 앉아 금강산에 나타난 기적과 같은 천체현상의 광경을 빛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선비를 묘사하고 있다.

Gallery 8. 태양풍 & 미래식물표본실(Solar Wind & Future Hebarium)



태양방사선폭풍으로 인해, 1989년 3월 캐나다 퀘벡주 전역의 송전시설이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 약 1만 MW의 전력손실이 일어남. 이 현상을 연구하여, 태양의 활동을 측정하는 영상을 제작.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실험실에서 태양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작. 영상의 앞면은 플레어와 식물의 변형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의 변형 포함) 에 대한 수년간 조사를 바탕으로 플레어가 꽃 설치물을 선보임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힘(태양)과 인간에 의해 파괴된 식물

Gallery 7, 오토 (Otto)



- 호주원주민미술관과 원주민 커뮤니티와 협업하여 제작
- 드론에 장착된 초분광 열카메라로 원주민 유적지와 주변 지질학적 기반(혈곡, 호수 등) 등을 촬영
- '장소의 힘'이 무엇인지, 측정 가능한 것인지 질문
- 허구와 현실, 신념과 과학이 얽혀 있음
- Otto는 영상 속에 실루엣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과 독일 물리학자 이름을 모두 뜻함.
- HD film
- Duration : 21:26

Otto Jungarrayi Sims

커뮤니티와 협업하여 제작한 영상인 <오토>는 특정 장소가 방문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신체적·감각적·정신적 영향에 대해 질문, 장소의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언젠가 이 힘이 과학적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드론에 열측정 카메라와 초분광 카메라를 장착하여 원주민 유적지를 촬영. 제목인 오토는 허구와 현실, 신념과 과학이 얽혀 있는 데서 유래.

이는 영상 속 실루엣의 주인공인 Otto Jungarrayi Sims와 1950년에 지구 표면과 이온층 사이를 순환하는 전자기 주파수의 존재를 예측한 독일 물리학자 Winfried Otto Schumann의 이름을 모두 가리킴. 7.83에서 32 헤르츠 사이인, 극도로 느린 이 주파수의 존재는 추후에 "슈만 공명"이라고 불림



소년은 어린시절의 순수함과 성스러움을 표상.

성인식, 아콧백이라는 오지에서 생전 처음 여성에서의 울로서기 도전, 조상의 뿌리를 찾고 성인기에 접어든다는 의미.

Gallery 6, 과거를 연구하다 (Studies into the Past)



Laurent Grasso - 김은태양
2014, 과거에 대한 고찰

16mm 필름 변형, 리닝타임
11분 40초

동태이 유적지, 고대 로마의
유양도시였으나 화산 폭발로
인순간 폐허가 되고, 카메라
는 동태이를 거니는 개의 모
습을 쫓는다.

시칠리아 동북해안, 바와 레
스토랑 후양각들을 많이,
그러나 섬의 3개 분화구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활화산이다.

과거의 유적지와 현재의 활
화산을 동시에 보여주며,
시공을 초월한 압력적인 자
연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

플라 카리나
2018, 영상 117X55X50
속편이 아직 세월을 배지거나 신비한 동전을 차광하는 듯
«검은태양»의 주요테이인 화산폭발의 흔적과 영상작품 <오도>에
나오는 신성한 장소인 플라 카리나의 동태이와 비슷한 형태



유화 82X150X6.5

전남도립미술관 개관 축하 제작
조선시대 일본의 동진사가 후진지역을 방문했을
당시의 천문도를 재해석

외교행사가 벌어지는 중에 여러 개의 태양이 떠 있
는 듯 보이는 상엄식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

116X150X6.5mm, 2011,
실크스크린, 푸면영사, 1911년 1월 29일 아침 촬영, 마살 화산
과학공원/ 오프라와 화산폭발 등의 자연현상



Mobilier national, Charels Le Brun(원작), 루이 14세 시기 1709

대중사실(複製)은 보살도 전당유형문화재 제179호

감사합니다.

양국 간의 시대별 사건에 따른 역사적 관점에서의 활성화 방안

정 종 대
(농촌공간연구소장)

–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한 역사적 재조명

| 기존 양국 간의 첫 교류 | 새롭게 쓰는 한불 첫 교류 |
|---|---|
| <p>병인양요 (1866년 고종3년)병인박해를 명분으로 프랑스가 일으킨 전투 한불관계의 시작점은 조선 시대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후기에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포함된 천주교신자들을 조선정부가 외교문제가 되었고 이를 빌미로 프랑스 군대와 조선군이 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강탈당한 외규장각 문서 등 문화재의 반환문제는 현재도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다.</p> | <p>1851년 프랑스 표류 선원 귀국조치 비변사 등의 역사적 자료를 기초로 관문을 통한 행정적 절차와 공궤 등으로 표류 선원들에 대해 극진히 섬기며 보살핀 옛 선조들의 모습으로 한불 첫 만남에 대해 기록되어짐</p> |

– 활성화를 위한 방안
우호적 관계를 목표로 하는 실천 과제가 필요

소통을 시작으로 상품으로

- 문화 소통을 위한 연결고리 찾기
- 다양한 계층별 산업별 연결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 특히 나누가 가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

- 미래 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어 교육적 측면도 고려
- 문화 상품 및 제품군들의 다 변화를 꾀할 수 있음
- 지역간의 공통점을 찾아 상호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및 MOU등을 체결

▶ **현 나주시 국제 교류현황**

- 자매결연(2개국)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
미국: 워싱턴주 웨네치시
- 우호교류(9개국) 중국: 절강성 여요시, 절강성 태주시, 길림성 백산시
안휘성 이신현, 강서성 남창시
덴마크: 해더슬레브시
미국: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셸르켈리구
필리핀: 팜팡가주

 **상호 연결점을 찾아야 하는 콘텐츠**

| 구분 | 나주 | 프랑스 |
|--------|----------------|----------------------------------|
| 언어(지역) | 한글마을 | 프로방스 |
| 음식문화 | 배, 홍어, 나주곰탕 | 에스까르고(달팽이요리) 푸아그라(거위나 오리 간요리) |
| 가공상품 | 막걸리, 도자기 | 와인 (보르도지방), 치즈 |
| 관광지 | 나주목사, 국립나주 박물관 | 루브르 박물관 |
| 염색문화 | 쪽 염색 | 프랑스 카탈로니아(과거 명산지) |

 **시민들의 현 주소와 소통의 필요성**

- 계층간의 차이점 존재
- 나주의 특성으로 인한 신도심과 배후지역 농촌의 산업차에 의한 이해관계
(예: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어린이들의 부재로 교육적 교류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
- 주민들의 참여의식으로 다양한 과제 발굴 필요
(주민 소통 참여 워크숍)
- 지속적인 홍보와 학술적 접근
- 국제관계와 역사적 고증이 이루어진 다양한 콘텐츠의 교류

1851년 나주諸島 프랑스 선원 표류의 역사와 한·불 교류 활성화 방안

윤 지 향

(나주시 학예연구사)

토론자는 1851년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 선원의 비금도 표류사건에서 나주목사가 조선의 대리자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환대하고 송환 조치한 역사 속에서 당시 나주목과 관련한 여러 모습을 살피고, 역사 속의 나주가 보유한 미래가치를 찾아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羅州牧은 내륙의 바다 영산강을 배경으로 내륙과 바다를 모두 끼고 있는 남방의 거진¹⁾이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나주목은 해진(해남+진도), 영암, 영광의 3개 군과 강진, 무장, 함평, 남평, 무안, 고창, 흥덕, 장성 등 8개 현을 관할하였다. 이외에 현재 신안군에 속한 서남해 대부분의 섬 지역은 나주목에 속하여 羅州諸島²⁾로 관리되었다.

1851년 나주제도에 속한 비금도에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호의 난파로 선원들이 표도하였다. 이 사건은 조선의 『비변사등록』, 『일성록』, 『제주계록』 등 관찬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프랑스에도 기록이 남아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사료를 뒷받침하는 옹기 술병과 당시 만찬의 주인공이자 조선의 대리자로 참석한 이정현 남평현감겸나주목사의 선정비가 각기 양국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영사가 가져간 옹기 술병이 신호탄이 되어 양국의 외교사를 새롭게 규명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양국 학자들이 모여 학술 포럼이 열리게 되었으니, 역사가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에 다시 살아난 것이다.

- 1) 고려말 삼봉 정도전이 나주로 유배되어 왔을 때 동점문에 올라 나주인들에게 ‘登羅州東樓諭父老書’를 남겼는데 이 내용에서 나주를 일컬어 ‘南方一巨鎮’이라 하였다.
- 2) 나주 부속도서의 수는 『동국여지승람』에는 30개로 되어 있지만 1730년 전후에 이르면 57개, 또는 72개로 기록되고 있다.

우리 앞에는 여러 연구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비변사 보고내용을 보면 선원들의 송환을 위해 나주의 조창에 속한 조운선 중 돛대가 2개인 튼튼한 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행되었는지, 비금도까지 운항했다면 프랑스 선원들에게 제공되었는지 등이 궁금하다. 참고로 조선의 표류사건 처리 규례를 보면 표도인이 원하는 경우 송환에 따른 배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류사건이 매우 잦았던 나주목 관할에서는 제공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당시 이정현 목사가 비금도까지 타고 간 배와 운항 경로도 궁금하다. 배는 군선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1667년 나주목사로 부임한 이민서(李民紱)가 나주 목사로는 최초로 가뭄과 전염병 피해를 돌보기 위해 군선을 타고 영산창에서 출발하여 나주제도를 순시하고 영산강 죽포의 전선소로 귀환한 여정을 기록한 「입도기행」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³⁾

또한 비금도를 순시할 때 면포(沔浦)에 정박하고 섬 동쪽의 林씨 집에서 숙박하였다고 되어 있어 1851년 나주목사의 관선⁴⁾이 정박한 장소를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비금도의 지명 관련 기록에서 면포의 지명을 확인할 수 없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전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옹기 슬병의 생산지 문제이다. 당시 나주제도에 속한 섬 지역 사람들은 영산강을 따라 영산창 지역에 활발히 왕래하였고, 곡식과 생활용품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었다. 비금도가 옹기 제작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고 나주는 옹기제작이 아주 활발한 지역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나주목사와 프랑스 영사의 만찬상에 오른 옹기슬병의 제작지는 나주였을 가능성이 높아 옹기생산지로 유명했던 나주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어서 흥미롭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과 프랑스 관료의 첫 만남에 이정현 목사 외에도 많은 수행원이 있었고 그중에는 향리들도 있었다. 따라서 당시 수행한 향리들이 누구였는지, 이들이 남긴 기록이 있는지도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는 172년 전 프랑스 표류인 송환을 통해 조선이 역사 속에서 표류인에 대해 함께 살아가는 사랑(並生之仁)의 정신으로 대하는 원칙이 꾸준히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 물론 프랑스 영사는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 차원의 관점으로 보기도 했으나, 두 나라를 대표하는 관리 두 사람은 만찬을 통해 소통했고 이것이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사적 첫 만남이 되었다는 점에서 협력과 연대가 중요한 21세기에 새로운 역사로 발전시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5월 2일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은 이 우호적인 첫 만남을 기념하는 행사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연례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1851년 당시 나주목으로서 역사 중심에 있던 나주시와 현재 비금도를 관할하는 신안군이

3) 김덕진, 「이민서의 나주목사 부임과 부속 도서 진흥」, 『사림』 제79호, 2022

4) 김덕진은 위의 논문에서 당시 나주의 수군기지이자 전선소였던 죽포로 입항하는 것으로 이들이 타고 간 선박이 나주의 전선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5) 고석규, 「조선시기 표류경험의 기록과 활용」, 『島嶼文化』 제31집, 2005.

속한 전라남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 나주시가 포럼을 개최한 것은 역사 규명과 이를 토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양국 우호 증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포럼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양국이 어떠한 씨앗을 심고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밑그림을 전라남도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이 연례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2024년 5월 2일의 한-불 첫 만남 기념행사를 통해 우호 교류를 시작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한-불 양국이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를 파악하고 전라남도가 지자체와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물론 이를 포함하여 문화, 역사, 예술, 교육,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지속적인 교류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주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

우선 포럼을 통해 정리된 역사와 활용방안을 토대로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위한 중단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5월 나주시가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의 기념행사를 접한 것을 계기로 학술포럼을 준비하게 된 시작부터 전개 과정, 포럼의 성과, 포럼 결과 정리된 역사자료, 향후 과제 등을 모두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이는 172년 전의 역사가 문헌과 유물을 통해 우리 앞에 살아났듯이 현재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주시는 이번 포럼과 프랑스 초청인사의 나주 신안 현지 투어 전 과정을 다큐로 제작할 계획이다. 이는 앞으로 나주와 프랑스의 교류, 한국과 프랑스의 교류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학술 포럼 성과를 시민, 학계,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기회가 필요하다. 물론 포럼 자료집을 나주시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지만, 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표류 역사와 조선이 가졌던 포도인에 대한 환대의 전통, 이를 현대화하고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만들어가는 장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다. 예컨대 이와 관련한 기획전시를 한-불이 함께 개최하는 것도 양국의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셋째, 조선의 표류 역사에서 프랑스 관련 사건은 희귀하며, 지금도 나주를 비롯해 전라남도 내에 프랑스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 19세기 비금도 표류사건과 만찬의 이야기가 프랑스뿐 아니라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듯이 앞으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과의 교류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 문화예술, 역사, 교육, 경제, 산업 등 각 분야별 교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전라남도과 나주시 등 행정뿐 아니라 빛가람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국제교류기관과 단체, 학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주에 소재한 국립나주박물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교육청 등과 협력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컨대 옹기술병을 비롯해 한국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 세브르국립도

자기박물관과의 교류 전시, 전라남도립예술단과 나주시립예술단 등의 교류 공연, 관광프로그램 교류, 국제 예술 교류, 초중고 학생 교육프로그램 교류, 천연염색문화, 에너지산업, 프랑스에서 유명한 나주배와 가공품 등의 농업, 강의 생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실효성 있는 계획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넷째, 국가 간, 도시 간의 교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성을 담보한 방안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내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나주목의 특성상 중국, 일본, 동아시아, 프랑스 등의 표도인을 돌보고 고국으로 무사히 돌려보냈던 환대의 역사를 지금의 나주가 기억하고 미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나주목의 역사를 상징하는 나주읍성권에 표류기념관을 마련하여 프랑스와의 첫 만남을 중심으로 한 나주제도의 표류 역사를 전시하고, 나주를 방문한 외국인을 반갑게 맞아들이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거점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문화공간이 상설화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한국-프랑스 우호 증진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면 민간 외교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불 학술포럼 토론문

이 재 근

(신안군 학예연구사)

1. 포경선 나르발호 및 몽티니 영사의 원정대의 항로에 대해

19세기 중반 조선의 바다에 자주 출몰한 이양선과 표류민들에 대해서는 『비변사등록』의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만, 『일성록』의 기록에 의하면 서해안의 영광군 홍농면 우포촌에서 나르발 호의 출현을 최초로 보고했고, 영광군수와 법성첨사가 문정(問情)을 시도했지만 곧장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나르발호가 조선 해역에 들어왔던 항로에 대해서는 프랑스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또한 몽티니 영사의 원정대 선박은 제주도를 거친 후 서남해역으로 진입해 비금도를 찾기 위해 여러 섬들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정대의 여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19세기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유럽 국가들의 포경 목적

당시 조선을 포함해 동아시아 해역에서는 광범위한 포경이 성행했습니다. 포경을 구실로 유럽의 영국, 프랑스, 스페인 및 미국 등이 식민지를 확보하거나 이해관계에 의한 세력 확장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천주교의 교세 확장에 이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나르발호 난파지 비금도에서의 이동경로 및 섬 사람들의 도움

1851년 3월 2일 비금도 ‘서면 울내촌(西面 栗內村)’에 들어온 이국인 10명의 출현으로 인해 나주목에 알려진 본 사건은 나르발호 본선은 ‘예미포’에서 난파됐고, 작은 배 3척을 나눠탄 선원들은 ‘세항포’를 통해 내촌마을로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비금도는 여러 개의 섬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내촌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합니

다. 조선 후기부터 간척이 이루어져 일제강점기를 거쳐 1960년대까지 진행되어 현재의 섬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비금도의 풍헌 양선규, 요망군 장금철 등이 『일성록』 기록에 등장하는 섬사람으로 확인되며 이들을 중심으로 표류민들의 거처와 음식, 물 등을 제공되어 한 달을 체류하며 원정대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른 사례이지만 신안 우이도의 홍어장수 문순득은 1801년 홍도 근해에서 표류해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를 거쳐 중국의 육지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순득도 오키나와와 필리핀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연대의식, 개방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을 살피고 어루만져 위로한다는 ‘유원지의(柔遠之意)’ 정신으로 조난자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한 비금도 사람들을 비롯한 조선인들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4. 172년전 한불 외교 협력의 복원을 위한 노력

신안군은 『비변사등록』의 19세기 이양선들과 표류민들에 대한 140여건의 기록을 엮은 국역 자료집을 오래전에 발간했지만, 나르발호가 비금도에 난파된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자료와 해당 국가의 기록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추가적인 학술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몽티니 영사나 선원들의 후손 또는 출신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험난한 바다에서 뗏어진 인연을 다시 복원하고, 이를 기념하는 공원이나 샴페인 박물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교류에 대해 제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외교사 재조명을 위한
「나주와 프랑스의 첫 만남」 학술포럼

2023년 8월 18일 인쇄

2023년 8월 21일 발행

주 최 나주시

주 관 농촌공간연구소·미래문화교육연구소

후 원 전라남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인 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TEL. 062) 530-0571~3